작업지도원으로 어머니가 참여하는 전환기 발달장애인 일터개발 연구

2015. 12.

책임연구원: 정신모(로뎀직업재활센터 원장)
공동연구원: 윤성호(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위촉연구원: 정상훈(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연 구 진

연 구 책 임 : 정신모 (로뎀직업재활센터 원장)

공동연구원 : 윤성호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위촉연구원 : 정상훈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자문위원

박병현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창희 (대구사이버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이진섭 (부산기장군장애인부모회장)

배재훈 (부산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부회장)

<목 차>

연구요약 ····· iv

Ⅰ. 서론 ·····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2. 연구내용 ····· 2
3. 연구방법 ····· 3
4. 연구과정 ····· 3

Ⅱ. 이론적 배경 ····· 5
1. 발달장애인 취업 확대 관련 이론 고찰 ····· 5
2. 연구설계 관련 이론 고찰 ····· 8

Ⅲ. 연구설계 ····· 18
1. 양적 연구의 설계 ····· 18
2. 질적 연구의 설계 ····· 35

Ⅳ. 결과 분석 ····· 38
1. 양적 연구 결과 ····· 38
2. 질적 연구 결과 ····· 51

Ⅴ. 결론 및 제언 ····· 59
1. 결론 ····· 59
2. 제언 ····· 61

<참고문헌> ····· 65
[부록1] ····· 67
[부록2] ····· 72

<표 목 차>

<표 Ⅱ-1> 실험설계의 분류 및 개요 ····· 10
<표 Ⅱ-2> 실험설계의 방법 ····· 11
<표 Ⅱ-3> 5가지 질적 연구 접근방법의 특성 ····· 15
<표 Ⅲ-1> 연구 대상자 모집 계획 ····· 19
<표 Ⅲ-2> 연구 대상자 모집 결과 ····· 19
<표 Ⅲ-3> 측정도구의 내용 및 적용방법 ····· 20
<표 Ⅲ-4> 미네소타 손기민성 사전평가 결과 ····· 21
<표 Ⅲ-5>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 사전평가 결과 ····· 23
<표 Ⅲ-6> 발달장애인 대상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 24
<표 Ⅲ-7> 작업지도원 대상 역량강화프로그램 ····· 25
<표 Ⅲ-8> 현장훈련 프로그램 ····· 26
<표 Ⅲ-9> 작업지도원 대상 면접 설문지 ····· 36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연구과정 순서도 ····· 4
<그림 Ⅱ-1> 실험설계에서의 내적 타당성 ····· 12
<그림 Ⅱ-2> 실험설계에서의 외적 타당성 ····· 13
<그림 Ⅲ-1> 실험설계 모형 ····· 18
<그림 Ⅳ-1> 김**의 옮기기 수행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 38
<그림 Ⅳ-2> 이관*의 옮기기 수행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 39
<그림 Ⅳ-3> 정**의 옮기기 수행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 40
<그림 Ⅳ-4> 김**의 옮기기 수행 수준 평가 결과 ····· 40
<그림 Ⅳ-5> 이관*의 뒤집기 수행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 41
<그림 Ⅳ-6> 정**의 뒤집기 수행 수준 평가 결과 ····· 42
<그림 Ⅳ-7> 김**의 작업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 42
<그림 Ⅳ-8> 오**의 작업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 43
<그림 Ⅳ-9> 이관*의 작업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 44
<그림 Ⅳ-10> 정**의 작업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 44
<그림 Ⅳ-11> 김**의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 45
<그림 Ⅳ-12> 오**의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 46
<그림 Ⅳ-13> 이관*의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 46
<그림 Ⅳ-14> 정**의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 47
<그림 Ⅳ-15> 김**의 신체·자립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 48
<그림 Ⅳ-16> 오**의 신체·자립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 48
<그림 Ⅳ-17> 이관*의 신체·자립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 49
<그림 Ⅳ-18> 정**의 신체·자립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 49

요 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발달장애인은 인지기능 장애, 언어발달 지연, 동기 및 자아개념 부족, 사회적 상호작용 곤란, 의사소통기술 부족 등으로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발달장애인의 고용 기회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우려할 만한 수준임
- 그간 발달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위해 적합 직종 개발,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 적합 직업교육의 개발 등의 연구를 통해 유용한 제안이 있어왔으나, 이들 발달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목적으로 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다음의 3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음. 첫째, 발달장애인의 적합 직종과 관련해 1·2차 산업에 주목한 나머지 3차 산업인 서비스 분야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이 미흡하였음. 둘째, 직업재활프로그램과 관련해 보호고용, 지원고용 등 프로그램 설계에 주목한 나머지 취업 취약계층인 사각지대의 최중증장애인의 고용 창출에 적극적인 직업재활시설의 역할과 기관 내 적응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 탐색이 미흡하였음. 마지막으로, 작업지도원으로 어머니를 투입한 선행사례가 많지 않은 가운데, 몇몇 선행사례에서는 어머니의 직무 및 역할, 기본조건 등을 통제하지 않아 효과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매뉴얼과 기본 교육이 부족하였음

❑ 연구 목적

- 이에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취업 확대에 관한 선행연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소독·방역, 상주 청소의 서비스 직종을 개발해 전환기 발달장애인을 채용한 뒤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함께 고용해 직업 훈련 및 적응 과정을 도움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어머니가 작업지도원으로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투입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 본 연구는 전환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3차 산업 직종 개발, 직업재활시설의 적합 직무분석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채용 및 활용,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함께 고용해 작업지도원으로 활용하여 보호고용의 가능성 및 효과성 입증이라는 3가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수행하고자 함
- 첫째, 전환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3차 산업 직종 개발임. 둘째, 직업재활시설의 적합 직무분석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채용 및 활용임.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함께 고용해 작업지도원으로 활용하여 보호고용의 가능성 및 효과성 입증임

3. 연구방법

- 본 연구는 현장수요연구로서 현장 적용을 통해 경험적·임상적 연구 결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훈련 형태의 역량 강화 계획과 현장훈련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친 후 수정·보완한 후 각각의 훈련을 실행하였음. 현장훈련 사전, 도중, 사후에는 발달장애인의 직업기능 향상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타당화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양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분석하였음
- 아울러 양적 연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직무지도원의 역할을 맡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관찰, 면접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 질적 연구방법론에 따른 분석도 병행하였음

Ⅱ. 이론적 배경

1. 발달장애인 취업 확대 관련 이론 고찰

❑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 발달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위해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가 양희택·유경미·백민희(2014), 오길승(2006), 오길승(2009) 등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이들 연구는 1·2차 산업에 주목한 나머지 3차 산업인 서비스 분야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이 미흡하였음

❑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 발달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위해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김진호(2006), 안태희(2003), 이동영·김희정(2014) 등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이들 연구는 보호고용, 지원고용 등 프로그램 설계에 주목한 나머지 취업취약계층인 사각지대의 최중증장애인의 고용 창출에 적극적인 직업재활시설의 역할과 기관 내 적응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 탐색이 미흡하였음

❑ 적합 직업교육의 개발에 관한 연구

- 발달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위해 적합 직업교육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강동선·신진숙(2015), 오길승(2003) 등에 의해 수행되었으나, 이들 연구는 작업지도원으로 어머니를 투입한 선행사례가 많지 않은 가운데, 몇몇 선행사례에서는 어머니의 직무 및 역할, 기본조건 등을 통제하지 않아 효과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매뉴얼과 기본 교육이 부족하였음

2. 연구설계 관련 이론 고찰

❑ 양적 연구설계 관련 이론 고찰

- 사회복지학에 있어 실험설계는 여러 클라이언트 체계에 있어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는 것을 의미함(김정우·양심영, 2011). 이러한 실험설계의 목적은 실험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처치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음(김경우, 2008)
- 이러한 실험설계는 Babbie(1983)에 따르면 3가지 유용성을 가짐. 첫째, 실험설계는 비교적 제한되고 잘 정의된 개념이나 명제들을 포함하는 연구프로젝트에 잘 맞음. 둘째, 실험설계는 가설 검증, 특히 기술적 가설보다도 설명적 가설의 검증에 더 유용함. 마지막으로, 실험설계는 소집단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 적절하며 또한 성공적일 수 있음
- 실험연구의 설계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실험상황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는가에 따라 진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pre-experimental design), 유사실험 또는 준실험의 3가지로 나눌 수 있음

❑ 질적 연구설계 관련 이론 고찰

- 질적 연구는 Denzin과 Lincoln(2011)에 의하면 세계에 관찰자를 놓는 상황적인 활동으로서 세계를 보이도록 만드는 해석적이고 물질적 실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함. 질적 연구의 접근 방법론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Creswell(2015)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research),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문화기술지(ethnography), 사례연구(case study)로 구분될 수 있음
- 질적 연구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혹은 인간 문제에 부여하는 의미를 다루는 연구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정들, 그리고 해석적·이론적 틀을 활용하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음(Creswell, 2015)

❑ **본 연구에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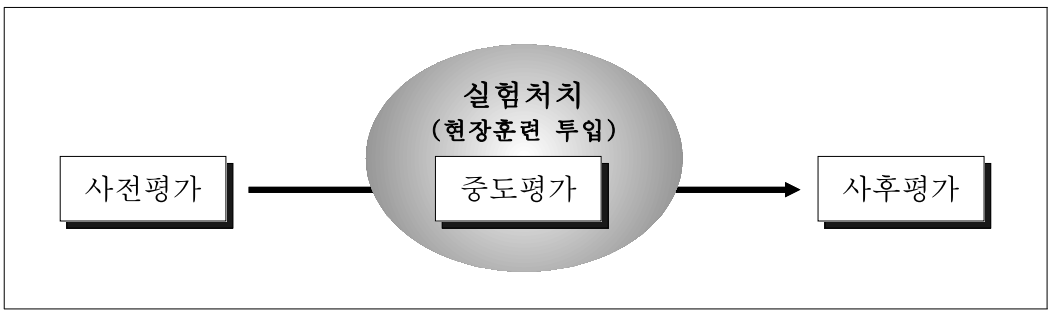
- 본 연구는 양적 연구 수행을 위해 여러 가지 실험설계 방법들 중 유사실험 또는 준실험 설계의 방법 중 하나인 '단일집단 전후검사 설계'를 적용하였음
-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해 다양한 질적 연구 접근방법론들 중 '현상학적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였음

Ⅲ. 연구설계

1. 양적 연구의 설계

❑ **연구모형 및 가설**

- 본 연구의 실험설계 모형을 다음 그림과 같이 설정함



- 본 연구의 양적 연구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함
  : "작업지도원으로서 같은 일터에 고용된 어머니의 작업지도를 받은 발달

장애인의 직업 기능 수준은 작업지도를 받기 전보다 좋아질 것임을 가정한다.”

❑ **연구 대상자**

-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환기 발달장애인 5명과 그들의 어머니임. 이들 5개조 중 1개조는 중도 탈락하여 최종 연구 대상자는 4개조 총 8명이었음

❑ **측정도구 및 기초선 측정**

- 본 연구의 실험처치 전후의 직업 기능 수준 파악을 위해 ‘미네소타 손기민성 검사도구’와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도구’를 활용하였음
- 기초선 구축에 활용하기 위해 2가지 측정도구로 사전평가를 2015년 9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음

❑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 본 연구의 실험처치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및 작업지도원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현장훈련 프로그램임
- 발달장애인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개발한 발달장애인 대상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현장훈련 투입 전 사전훈련의 형태로 2015년 9월 8일에서 11일까지 총 4일간 1일 4시간씩 진행하였음
- 작업지도원 대상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본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사전훈련 마지막 날인 2015년 9월 11일에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현장훈련 기간 동안 매주 1~2회 2시간씩 총 8회기에 걸쳐 진행하였음
- 현장훈련 프로그램은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도 포함한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구안해 2015년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9주에 걸쳐 적용되었고, 추석과 한글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42회기에 걸쳐 적용되었음. 훈련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고, 중도에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훈련시간은 총 4시간이었음

❑ **분석방법**

- 미네소타 손기민성 검사를 통해 옮기기 검사와 뒤집기 검사 결과를 언어척도, 스테나인척도, 퍼센타일로 구분해 제시하였고, 퍼센타일을 활용해

기초선과 현장훈련 투입 후 향상도를 그래프를 통해 도식화해 살펴보았음

-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를 통해 작업기능, 인지·문제해결기능, 신체·자립기능 검사 결과를 원점수, T점수, 준거점수로 구분해 제시하였고, T점수를 활용해 기초선과 현장훈련 투입 후 향상도를 그래프를 통해 도식화해 살펴보았음. 전반적인 직업 기능의 향상 수준은 퍼센트로 변환해 수치화해 제시하였음

2. 질적 연구의 설계

❑ 표본

- 본 연구에 참여한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로서 작업지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5명으로 구성된 유의 표본을 현상학적 연구에 활용하였음

❑ 연구설계

- 질적 연구를 수행한 공동연구원 및 위촉연구원은 자신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가지게 된 이전의 지식과 경험을 유보하고, 자신의 신념과 감정을 제쳐 놓아 지각이 현상에 더욱 개방적이고 충실할 수 있도록(Streubert & Carpenter, 1999) 괄호치기를 의식적으로 행하였음

❑ 자료의 수집

- 작업지도원의 역할을 수행한 발달장애인의 어머니에 대한 관찰과 면접 등으로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함.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작해 면접 자료를 수집함

❑ 자료 분석

- Colaizzi(1978)가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축어록을 작성한 후 이를 분석에 활용하였음

Ⅳ. 결과 분석

1. 양적 연구 결과

❑ 미네소타 손기민성 검사 결과

- 연구 대상자 4명은 손기민성 검사를 통해 일부 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고, 수준 향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러나 대부분 측정 오류가 발생하였음

❑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 결과

- 연구 대상자 4명은 모두 초기 평가 대비 최종 평가 향상률이 최저 12.8%에서 최고 21.4%까지 나타났음. 작업기능의 평균 향상률은 16.0%인 것으로 나타났음. 인지·문제해결기능 측정 결과에서는 연구 대상자 4명은 모두 초기 평가 대비 최종 평가 향상률이 최저 3.8%에서 최고 17.9%까지 나타났음. 인지·문제해결기능의 평균 향상률은 10.8%인 것으로 나타났음. 신체·자립기능 측정 결과에서는 연구 대상자 4명은 모두 초기 평가 대비 최종 평가 향상률이 최저 7.7%에서 최고 15.8%까지 나타났음. 신체·자립기능의 평균 향상률은 12.1%인 것으로 나타났음

❑ 가설 검증 결과

- 본 연구의 양적 연구 분석 결과 가설인 "작업지도원으로서 같은 일터에 고용된 어머니의 작업지도를 받은 발달장애인의 직업 기능 수준은 작업지도를 받기 전보다 좋아질 것임을 가정한다."는 채택되었음

2. 질적 연구 결과

❑ 4개 주제군 도출

- 질적 연구 수행 결과 의미 있는 진술 총 65개를 도출하였고, 이를 보다 큰 의미의 범주로 묶어 정리한 결과 총 4개의 주제군이 드러났음
- 주제1: 부정적 마음 추스르기
- 주제2: 내 아이의 가능성 발견하기
- 주제3: 양가감정 경험하기
- 주제4: 또 다른 부정적 마음의 용솟음

❑ 질적 연구 결과의 함의

- 질적 연구 대상자 4명의 어머니들은 작업지도원의 역할을 처음 수행하면서 두려움, 불안감, 낮은 자기효능감 등으로 인해 작업지도원 직무의 성공

적 수행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작업지도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현장훈련에서 작업지도원 실무에 대한 수행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부정적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하였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음. 작업지도원의 역할을 적극성을 띠고 행하게 되면서부터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아이의 직업적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하였고, 직업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음

-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투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였으나, 향후 동일한 과업 수행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음. 이러한 양가감정은 전업주부로서의 과거 역할에 대한 부정적 회귀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데, 실제로 현장훈련 종료 후 어머니들은 현장훈련 투입 전 가졌던 부정적 마음이 또 다시 용솟음치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음

Ⅴ. 결론 및 제언

❑ 제언

- 발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 입안자, 발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전환기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활용해 같은 일터에 투입하는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정책은 장애인 당사자 개인을 위한 정책에서 종합적인 가족지원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전환기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전문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전환기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훈련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고용 성과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기관과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발달장애인은 인지기능 장애, 언어발달 지연, 동기 및 자아개념 부족, 사회적 상호작용 곤란, 의사소통기술 부족 등(김호엽, 1999; Tsai, 1992)으로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결과 지적장애, 자폐성장애를 포함하는 정신적 장애의 고용률은 23.2%(고용개발원, 2014)에 불과하여 다른 장애 유형보다 고용률이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박현옥(2011)은 발달장애인의 고용 기회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우려할 만한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발달장애인은 독립적인 의사결정 능력, 일상생활 능력 등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애주기 동안의 재활과정에서 사회성 및 경제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일자리가 필요하다.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여타 장애 유형보다 더욱 강력한 수준으로 빈곤층을 양산하고, 가정 경제를 파괴하는 등의 사회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그간 발달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위해 적합 직종 개발(양희택·유경미·백민희, 2014; 오길승, 2006; 오길승, 2009),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김진호, 2006; 안태희, 2003; 이동영·김희정, 2014), 적합 직업교육의 개발(강동선·신진숙, 2015; 오길승, 2003) 등의 연구를 통해 유용한 제안이 있어왔으나, 이들 발달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목적으로 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 다음의 3가지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

첫째, 발달장애인의 적합 직종과 관련해 1·2차 산업에 주목한 나머지 3차 산업인 서비스 분야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이 미흡하였다.

둘째, 직업재활프로그램과 관련해 보호고용, 지원고용 등 프로그램 설계에 주목한 나머지 취업 취약계층인 사각지대의 최중증장애인의 고용 창출에 적극적인 직업재활시설의 역할과 기관 내 적응 프로그램의 활용 가능성 탐색이 미흡하였다.

마지막으로, 작업지도원으로 어머니를 투입한 선행사례가 많지 않은 가운데, 몇몇 선행사례에서는 어머니의 직무 및 역할, 기본조건 등을 통제하지 않아 효과성이 낮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매뉴얼과 기본 교육이 부족하였다.

이상과 같이 그간 발달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위한 연구에서 직업교육과 관련해 발달장애인의 부모, 특히 발달장애인의 어머니가 직업적응에 관한 교육

에 있어 특정 역할을 맡음으로써 교육의 수행도 및 효과성을 담보할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탐색이 미흡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취업 확대에 관한 선행연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소독·방역, 상주 청소의 서비스 직종을 개발해 전환기 발달장애인을 채용한 뒤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함께 고용해 직업 훈련 및 적응 과정을 도움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어머니가 작업지도원으로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투입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내용

본 연구는 전환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3차 산업 직종 개발, 직업재활시설의 적합 직무분석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채용 및 활용,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함께 고용해 작업지도원으로 활용하여 보호고용의 가능성 및 효과성 입증이라는 3가지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이들 3가지 연구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3차 산업 직종 개발이다. 최중증장애인으로 독립적 직무가 어려우며 어머니의 작업지도를 통해 보호고용이 가능한 전환기 발달장애인에게 적합한 새로운 직종으로서 공공기관(교통공사, 경찰서, 수련원 등)의 소독·방역, 상주 청소 직종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최근 공중 보건의 필요성과 안락한 공간 조성 욕구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살충제·향균제 등을 이용한 소독·방역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단시간 직무교육을 통해 현장 투입이 가능하므로 발달장애인에게 적용하여 적합 직종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청소 직종은 여성고령자를 중심으로 정착된 직종이고, 장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꼼꼼하게 청소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는 직무 특성 상 발달장애인을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의 어머니와 한 조를 이루어 직무를 수행한다면, 상주 청소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발달장애인에게 적용하여 적합 직종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둘째, 직업재활시설의 적합 직무분석을 통한 발달장애인의 채용 및 활용이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3차 산업직종에 맞는 맞춤형 직무분석 및 훈련을 통해 전환기 발달장애인을 근로자로 채용한 뒤 시설 내부의 적응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지속적 고용유지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함께 고용해 작업지도원으로 활용하여 보호고용의 가능성 및 효과성 입증이다. 전환기 발달장애인 개개인이 갖는 다양한 장애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고용하고자 한다. 어머니의 개인적 특성에 기인하는 변수를 통제하기 위해 어머니의 역할과 방법에 대한 교육자료 및 매뉴얼 등을 제작·활용해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한 조로 편성해 직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적응 과정의 효과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효과성의 탐색 방법으로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양적 접근과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질적 접근의 연구방법론을 혼합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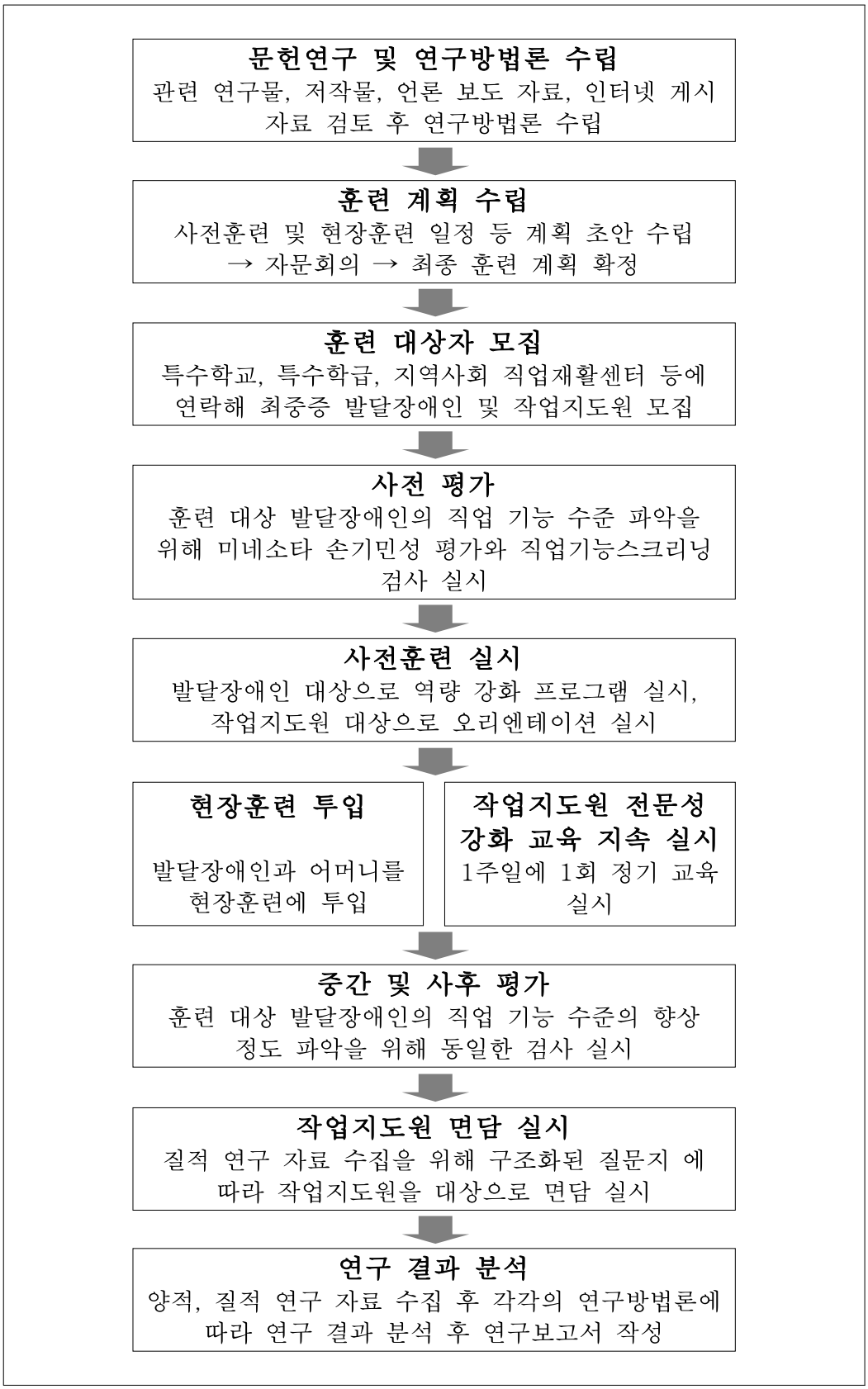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취업 확대에 관한 연구물, 저작물, 언론 보도 자료, 인터넷 게시 자료 등을 광범위하게 수집하여 문헌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작업지도원으로 어머니가 참여하는 전환기 발달장애인 일터 개발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현장수요연구로서 현장 적용을 통해 경험적·임상적 연구 결과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전훈련 형태의 역량 강화 계획과 현장훈련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친 후 수정·보완한 후 각각의 훈련을 실행하였다. 현장훈련 사전, 도중, 사후에는 발달장애인의 직업기능 향상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타당화된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한 후 그 결과를 양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아울러 양적 연구 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의 직무지도원의 역할을 맡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관찰, 면접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 질적 연구방법론에 따른 분석도 병행하였다. 이러한 혼합적 연구방법론에 따라 본 연구의 수행 결과를 입체적으로 검증해 보고하고자 하였다.

4. 연구과정

본 연구는 문헌연구 고찰 결과를 토대로 실증적 연구 결과를 제시하기 위해 다음 <그림 1-1>과 같은 연구과정에 따라 수행되었다.



<그림 Ⅰ-1> 연구과정 순서도

Ⅱ. 이론적 배경

1. 발달장애인 취업 확대 관련 이론 고찰

1)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

발달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위해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연구가 양희택·유경미·백민희(2014), 오길승(2006), 오길승(2009) 등에 의해 수행된 바 있는데, 이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오길승(2006)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대책의 역사적 과정과 취업・직업재활 실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1차 산업 분야의 직종 개발을 논의하였다. 그는 특히 1차 산업 분야를 발달장애인의 적합 직종으로 개발하는 것이 2차 산업 분야에 비해 가지는 장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첫째, 2차 산업 분야에 비해 적은 설비 투자비로 자체 생산이 가능한 직업재활사업에 착수가 훨씬 용이할 것이다. 둘째, 1차 산업 분야의 어떤 특정 종목에서 착수한 직업재활사업이 실패한다하더라도, 2차 산업 분야에 비해 다른 종목으로의 전환이 용이하고 그 손해가 훨씬 적을 것이다. 셋째, 발달장애인들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1차 산업 분야에서 제공되는 일들이 2차 산업 분야에 비해 더욱 적합하여 직업 수행이 용이할 것이다. 넷째, 2차 산업 분야에 비해 훨씬 수익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1차 산업 분야에서 제공되는 일들은 장애인근로자들에게 정서적・교육적 치료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농업 인력의 절대 부족과 장애인고용률의 저하라는 2가지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음 오길승(2009)은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농업분야의 가능성 탐색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서도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들에게 농업 분야의 직종 개발은 정서적・교육적・치료적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참여 장애인들의 대부분은 작업태도, 심리적 안정성, 운동성 등의 3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는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직업교육에 있어 농업 분야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반면, 발달장애인의 적합 직종으로 3차 산업에 주목한 연구도 있었다. 양희택, 유경미 및 백민희(2014)는 발달장애 청년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의 창출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회적일자리 프로젝트인 '꿈을 잡고(Job Go)'를 통해 전환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바리스타 양성교육을 실시한 후 카페에 입직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들은 이 연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바리스타 직무로서의 입직 가능성을 확인했고, 취업한 발달장애인의 직무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적합 직종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대부분 1·2차 산업에 주목한 나머지 3차 산업인 서비스 분야에의 적용 가능성 탐색이 미흡하였다.

2)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발달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위해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김진호(2006), 안태희(2003), 이동영·김희정(2014) 등에 의해 수행된 바 있는데, 이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김진호(2006)는 지적장애학생들을 위한 지역사회 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 제공을 위해 충남의 천안・아산지역의 128개 지역사업체를 대상으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역사업체의 현장 직업훈련 장소 제공 가능성, 현장직업훈련의 필요성, 장애인 고용경험과 만족도, 향후 장애인 고용과 지적장애인의 직업적응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그는 인식조사의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사업체는 직업훈련장소를 허락하는 데 부정적 반응을 많이 보였고, 장애인의 고용 경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향후 고용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낮은 인식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적장애학생의 현장직업훈련의 필요성은 비교적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이들의 직업적응가능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사업체 유형별 차이에서는 제조업체보다 서비스업체가 현장실습장소 제공과 현장실습훈련에 대해 더욱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그는 지역사회의 현장 중심의 지적장애인 대상 직업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다음 안태희(2003)는 발달장애인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하고 있는 3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참여관찰과 질적 분석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고용 유지에 필요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그는 질적 연구 분석 결과에서 발달장애인에게는 전문적인 직무지도원의 지속적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연구 대상 3개 업체 모두 공통적으로 1년 이상 장기 배치된 직무지도원이 발달장애인 고용유지에 핵심인력이었고, 고용주와 일

반근로자의 이해를 넓히는 등 발달장애인이 적응하기 쉬운 직장환경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직무지도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동영과 김희정(2014)은 보호고용수준의 지적장애인의 직업생활능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실증하기 위해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를 적용해 장애인종합복지관의 보호작업장에서 운영 중인 프로그램의 효과를 지역사회적응검사 척도를 활용해 검증하였다. 그들은 통계적 검증 결과를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의미 있게 도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임상적 효과 발현을 위한 프로그램의 정교화 노력과 타 기관에의 적용을 위한 구체화 작업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상과 같이 적합 직업재활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보호고용, 지원고용 등 프로그램 설계에 주목한 나머지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더욱 열악한 취업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재활프로그램의 개발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3) 적합 직업교육의 개발에 관한 연구

발달장애인의 취업 확대를 위해 적합 직업교육의 개발에 관한 연구가 강동선·신진숙(2015), 오길승(2003) 등에 의해 수행된 바 있는데, 이들 연구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강동선과 신진숙(2015)은 성인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 중심의 평생교육 운영 영역의 구성요인을 추출하고, 그 하위요인들을 구명하여 직업 중심 평생교육 모델을 제시하고자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들은 특수교육, 사회복지, 직업재활 및 치료 전문가 94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추출한 구성요인을 바탕으로 성인 발달장애인 직업중심 평생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 모델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직업중심 평생교육기관에서 지역사회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일상생활교육, 지역사회적응, 기초학습, 직업생활, 문화・여가활동 등의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구성해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제안하였다.

다음 오길승(2003)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이나 전환교육이 현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학교 2학년부터 이러한 적합 직업교육이 시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이전에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특수교육의 모든 교과에 있어 학업교과 중심보다는 기능 중심적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함께 중학교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직업교육이 시작될 경우 직업적성에 대한 진단과 여러 종류의 직업표본 등 직업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다양한 직업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탐색과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이상과 같이 적합 직업교육 개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업교육 개발 제안에서 작업지도원으로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활용한 선행사례는 거의 찾을 수 없었는데, 발달장애인에게 상존하는 인지기능 장애, 언어발달 지연, 동기 및 자아개념 부족, 사회적 상호작용 곤란, 의사소통기술 부족 등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직무의 적응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어머니의 역할을 강화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하다.

2. 연구설계 관련 이론 고찰

1) 양적 연구설계 관련 이론 고찰

본 연구는 작업지도원으로 어머니가 참여하는 전환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터 개발을 위해 실험설계를 적용하였다. 실험설계를 적용하는 이유는 작업지도원으로서 본 연구에 참여하는 어머니가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직업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를 증명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실험연구 전반에 대한 이론 고찰 결과를 요약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학에 있어 실험설계는 여러 클라이언트 체계에 있어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김정우·양심영, 2011). 이러한 실험설계의 목적은 실험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처치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있다(김경우, 2008). 여기서 실험설계에 있어 핵심이 되는 실험(experiment)이란 조사연구의 한 부분으로서 변수들을 조작하고 이들 조작된 변수들이 다른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과학으로서 사회복지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시간적 제약, 비용적 제약, 사회적 요인의 제약, 지리적 제약이 따른다(김환철·최희순, 2010). 그렇기 때문에 연구의 주제 및 제반 환경적 제약을 고려하여 적절한 실험설계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실험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발생 가능한 모든 제약 조건들을 고려하여 연구 주제를 가

장 잘 탐색할 수 있는 실험설계 방법을 다수의 방법들 중에서 선택해야만 한다.

이러한 실험설계는 Babbie(1983)에 따르면 3가지 유용성을 갖는다. 첫째, 실험설계는 비교적 제한되고 잘 정의된 개념이나 명제들을 포함하는 연구 프로젝트에 잘 맞는다. 둘째, 실험설계는 가설 검증, 특히 기술적 가설보다도 설명적 가설의 검증에 더 유용하다. 마지막으로, 실험설계는 소집단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 적절하며 또한 성공적일 수 있다.

실험연구의 설계 유형은 매우 다양한데, 실험상황에 대한 통제가 어느 정도 이뤄질 수 있는가에 따라 진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pre-experimental design), 유사실험 또는 준실험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진실험 설계에서는 실험조작(또는 처리)에 대한 완전한 통제가 가능하고 실험집단과 같은 정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통제집단을 확보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사실험 또는 준실험 설계는 실험처리에 대한 완전한 통제도 가능하지 않거나, 실험집단과 동등한 통제집단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실험 설계는 실험조작에 대한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고, 실험설계 자체도 매우 단순하여 종속변수 상에 나타난 변화가 실험조작(처리) 때문인지도 알 수 없는 매우 초보적인 실험 설계라 할 수 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실험처리에 대한 통제의 어려움이라는 점에서나 또는 실험집단과 완전하게 동질적인 통제집단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진실험 설계보다도 유사실험 도는 준실험 설계, 나아가 전실험 설계가 더 많이 사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김병진·소재진·김항곤, 2013).

여기서 유사실험 또는 준실험 설계는 다시 단일집단 사후검사 설계(one-group posttest-only design), 단일집단 전후검사 설계(one-group pretest-posttest design), 이질집단 사후검사 설계(posttest-only noneequivalent group design), 시계열 실험(time series design), 이질통제집단 전후검사 설계(noneequivalent control group pretest posttest design)로 세분된다. 또한 진실험설계는 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posttest-only control-group design), 전후검사 통제집단 설계(pretest-posttest control-group design), 솔로몬 4집단 설계(Solomon four-group design)로 세분된다(김경우, 2008). 이들 각 설계방법의 구체적인 개념은 <표 Ⅱ-1>과 같다.

<표 Ⅱ-1> 실험설계의 분류 및 개요

구분		실험설계별 개요
유사실험 또는 준실험 설계	단일집단 사후검사 설계	일회적 사례연구라고도 하는데, 이 설계에서는 어느 한 집단이 피험자에게 실험처치를 가하고, 그 후에 피험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절차를 밟는다.
	단일집단 전후검사 설계	연구 대상으로 한 집단만을 선정해서 실험처치를 가하기 전에 사전검사를 하여 미리 종속변수를 관찰해 놓고, 일주일쯤 뒤에 실험처치를 가한 후에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두 검사 결과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실험처치의 효과를 검토하는 방법이다.
	이질집단 사후검사 설계	무처치 집단과 비교설계라고도 하는데 이 방법은 2개의 집단의 피험자들을 대상으로 하되, 한 집단에게는 실험처치를 가하고, 다른 집단은 아무런 처치를 가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가 이들 두 집단에 똑같은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검사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그 차이를 실험처치의 효과로 보는 방법이다.
	시계열 실험	어느 한 개인이나 집단을 대상으로 삼아 종속변수로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이러한 측정의 시계열 중간에 실험적 처치를 도입하는 것이다. 실험처치가 가해진 후 관찰된 결과를 통해 실험처치의 영향 정도를 파악한다.
	이질통제집단 전후검사 설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이 있지만 두 집단이 실험을 위한 무선적으로 등질화된 것은 아니다. 대개는 기존의 집단을 자연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 채 적당히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잡아서 연구에 이용하게 된다.
진실험 설계	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	피험자들을 표집하여 이들을 두 개의 집단, 즉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선적으로 배치한 후 사전검사는 실시하지 않고 실험집단에는 실험처치를 가하고 통제집단에는 실험처치를 가하지 않는다. 그 다음 두 집단에 사후검사만을 실시하여 이들 두 집단의 사후검사치의 차로써 실험처치의 효과를 알아보려는 방법이다.
	전후검사 통제집단 설계	가능한 한 무선적 방법으로 피험자를 표집하고, 표집한 피험자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선적으로 배치한 후 이들 두 집단에 사전검사를 실시하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무선적으로 한 집단(실험집단)을 골라 그 집단에게는 실험처치를 가하고 다른 집단(통제집단)에게는 아무런 실험처치도 가하지 않은 다음 두 집단에 같은 기준에서 사후검사를 실시하여 이들 두 집단이 사전사후검사치의 차이로써 실험처치의 효과를 알아보는 방법이다.
	솔로몬 4집단 설계	전후검사 통제집단 설계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검사를 하지 않는 두 개의 집단을 추가한 것을 말한다. 이 방법에서는 피험자를 4개의 집단에 무선 배치한 다음 첫째 집단에는 사전검사를 하고 실험처치를 한 후에 다시 사후검사를 실시하고, 둘째 집단에는 사전검사를 하고 얼마 있다가 실험처치 없이 사후검사를 실시하며, 셋째 집단에는 사전검사 없이 실험처치를 가하고 사후검사만을 실시하고, 넷째 집단에는 사후검사만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김경우(2008). 사회복지조사론. 서울: 도서출판 두남. pp.204-209. 재구성.

<표 Ⅱ-1>의 총 8가지 유사실험 또는 준실험 설계와 진실험설계의 설계방법을 Campbell과 Stanley의 기호 체제에 따라 도식화하면 <표 Ⅱ-2>와 같다. 참고로 Campbell과 Stanley의 기호 체제에서 R(randomization)은 각 집단에 피험자들이나 실험처치를 무선적으로 배정함으로 뜻한다. 또한 X(treatment)는 특정 집단에 어떤 실험처치를 실시함을 뜻하고, O(observation)는 관찰이나 검사를 실시함을 뜻한다(김경우,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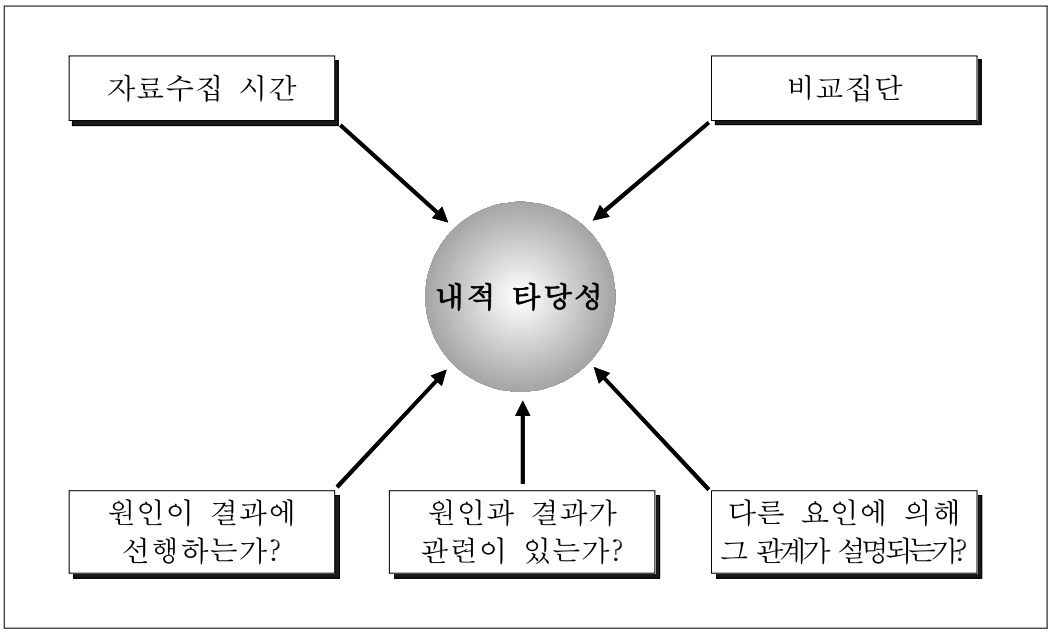
<표 Ⅱ-2> 실험설계의 방법

구분		실험설계별 기호 체제에 따른 방법
유사실험 또는 준실험 설계	단일집단 사후검사 설계	X O
	단일집단 전후검사 설계	O_1 X O_2
	이질집단 사후검사 설계	X O O
	시계열 실험	O_1 O_2 O_3 O_4 X O_5 O_6 O_7 O_8
	이질통제집단 전후검사 설계	O_1 X O_2 O_1 O_2
진실험 설계	사후검사 통제집단 설계	R X O_1 R O_1
	전후검사 통제집단 설계	R O_1 X O_2 R O_1 O_2
	솔로몬 4집단 설계	R O_1 X O_2 R O_1 O_2 R X O_2 R O_2

이러한 실험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인과성과 타당도의 기준을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인과성이란 사실들 간의 다양한 관계 성격들 중에서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현재 과학적 방법에서 인과성의 존재 여부 확인을 위해서는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통제성이라는 3가지 경험적 조건을 충족시킬 것을 요구한다(Rubin & Babbie, 1993). 여기서 공변성이란 두 변수가 함께 변화하는지를 의미한다. 한 변수가 변화할 때 그것과 관련이 있다고 믿어지는 변수도 따라서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인데, 두 변수가 어떤 식으로든 관계(relation)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변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다음 시간적 우선성이다. 한 변수가 원인이고 다른 변수가 결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두 변수 간 관계가 존재한다는 공변성의 검증과 더불어 원인 변수의 변화가 결과 변수의 변화보다 시간적으로 앞서서 나타남을 경험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인과성의 마지막 조건은 통

제이다. 통제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외부의 영향력을 배제한 상태에서 순수하게 두 변수만의 공변성과 시간적 우선성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다. 만약 두 변수 모두 제3의 다른 변수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면, 인과성이 없음에도 공변성과 시간적 우선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통제된 상태에서 공변성과 시간적 우선성이 있을 때만이 인과관계는 최종적으로 성립한다(김영종, 2011).

한편, 타당도는 실험설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라 할 수 있는데, 연구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타당도는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로 구분된다. 내적 타당도는 독립변수가 실제로 종속변수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또한 외적 타당도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실험적 처치가 다른 비슷한 연구 대상자의 구조에서도 효과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김정우·양심영, 2011). 실험설계에 있어 내적 타당도는 <그림 Ⅱ-1>과 같이 자료수집 시간과 비교집단을 적정하게 설정해야 하는 문제와 앞서 살펴본 인과성의 3가지 기준을 만족하게끔 설정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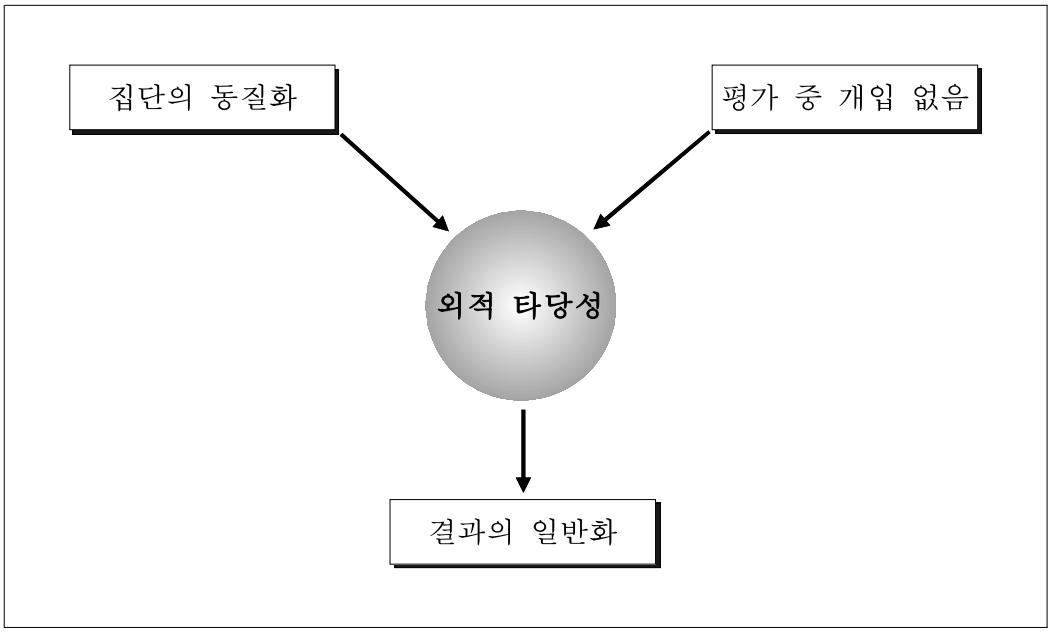


<그림 Ⅱ-1> 실험설계에서의 내적 타당성

출처: 김정우·양심영(2011). 사회복지조사론. 파주: 양서원. p.155.

<그림 Ⅱ-1>에서 원인이 결과에 선행하는지, 원인과 결과가 관련이 있는지, 다른 요인에 의해 그 관계가 설명되지는 않는지는 인과성의 기준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이와 더불어 실험설계의 내적 타당성을 갖추기 위한 조건으로 자료수집 시간과 비교집단이 있다. 자료수집 시간은 실험설계의 효과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자료수집 시간을 응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비교집단과 관련해서는 비교집단의 동질성이 중요한데, 집단의 동질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피실험자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무작위 할당하는 것이다. 여기서 무작위 할당은 모든 피실험자가 집단으로 뽑힐 동일한 확률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정우·양심영, 2011). 아울러 연구설계에 있어 고려해야 할 또 다른 타당도로 외적 타당도가 있는데, 외적 타당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그림 Ⅱ-2>와 같이 집단의 동질화와 평가 중 개입 없음을 통해 결과의 일반화를 충족해야 한다.



<그림 Ⅱ-2> 실험설계에서의 외적 타당성

출처: 김정우·양심영(2011). 사회복지조사론. 파주: 양서원. p.157.

<그림 Ⅱ-2>에서 집단의 동질화는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평가 중 개입 없음은 평가 과정에서 다른 어떤 개입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는 것이다(김정우·양심영, 2011). 이 같은 2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그 실험설계에 따라 도출된 분석 결과는 일반화할 수 있는 것이다.

2) 질적 연구설계 관련 이론 고찰

질적 연구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게 정의되는데, Denzin과 Lincoln(2011)에 의하면 질적 연구는 세계에 관찰자를 놓는 상황적인 활동으로서 세계를 보이도록 만드는 해석적이고 물질적 실천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정의를 참고할 때 질적 연구는 인간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이지만 제대로 구명되지 않은 사실을 연구자가 해석해서 밝히는 연구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질적 연구의 접근 방법론은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Creswell(2015)에 의하면 대표적으로 내러티브 연구(narrative research), 현상학적 연구(phenomenological study),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문화기술지(ethnography), 사례연구(case study)로 구분될 수 있다. 각 접근법의 개요를 간단히 요약・정리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내러티브 연구는 결과물이면서 방법이기도 한 질적 연구 접근으로서 인간 경험을 진술하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나 내러티브 또는 기술들을 연구한다(Pinnegar & Daynes, 2007). 현상학적 연구는 여러 개인이 경험한 현상(혹은 토픽이나 개념)의의미를 기술하는데, 연구자는 경험들을 중심 의미 혹은 경험의 본질로 환원한다(Moustakas, 1994). 근거이론은 시간에 따라 발생하는 명백한 단계 혹은 국면을 갖는 과정 혹은 행동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론은 연구자가 발전시킨 이해 혹은 뭔가에 대한 설명이다(Creswell & Brown, 1992). 문화기술지는 주로 관찰과 연구자가 현장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것에 기반을 두어 자연 그대로의 문화적 또는 사회적 집단(또는 한 개인이나 집단 내의 개인들)을 연구하는 것이다(Thomas, 1993). 사례연구는 실생활, 동시대적 맥락 혹은 세팅 내의 특정 사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Yin, 2013). 이상의 5가지 질적 연구 접근방법의 특성을 초점, 가장 적합한 문제 유형, 분석 단위, 자료수집 형식, 자료분석 전략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표 Ⅱ-3>과 같다.

<표 Ⅱ-3> 5가지 질적 연구 접근방법의 특성

구분	내러티브 연구	현상학적 연구	근거이론	문화기술지	사례연구
초점	개인의 인생을 탐색	경험의 본질을 이해	현장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한 이론의 개발	문화공유집단을 기술하고 해석	단일 사례나 여러 사례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한 기술과 분석
설계에 가장 적합한 문제 유형	개인적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자 할 때	체험한 현상의 본질을 기술하고자 할 때	연구참여자의 관점에서 근거이론을 개발하고자 할 때	집단 문화의 공유된 패턴을 기술하고 해석하고자 할 때	단일 사례나 사례들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할 때
분석 단위	한 명 이상의 개인들을 연구	경험을 공유해 온 여러 개인들을 연구	많은 개인들이 포함된 과정, 행동, 상호작용을 연구	같은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연구	사건, 프로그램, 활동, 한 명 이상의 개인을 연구
자료수집 형식	주로 면접과 문서 활용	주로 개별면접이지만, 문서와 관찰, 예술작품도 활용 가능	주로 20~60명 정도의 개인들과 면접	주로 관찰과 면접을 활용하지만, 현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자료원들을 수집	면접, 관찰, 문서, 인공물과 같은 다양한 자료원들을 활용
자료분석 전략	이야기, 이야기 재구성, 주제 전개, 종종 연대기 사용	의미 있는 진술, 의미 단위, 조직적·구조적 기술, 본질에 대한 기술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문화공유집단에 대한 기술, 집단에 대한 주제	사례 간 주제뿐 아니라, 그 사례의 주제와 사례에 대한 기술

출처: Creswell, J. W(2015).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서울: 학지사. p.133. 재구성.

한편, 질적 연구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 혹은 인간 문제에 부여하는 의미를 다루는 연구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정들, 그리고 해석적·이론적 틀을 활용하는 특성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Creswell, 2015).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철학적 가정에는 존재론적 신념, 인식론적 신념, 가치론적 신념, 방법론적 신념이 있다. 또한 대표적으로 활용하는 해석적 틀에는 후기실증주의, 사회구성주의, 변혁적/포스트모던, 실용주의, 비판, 인종, 페미니스트, 동성애, 장애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철학적 가정과 해석적·이론적 틀을 격자 형태로

서로서로 연결하여 다양한 토대 위에서 질적 연구는 수행되고 기술된다.

3) 본 연구에의 적용

본 연구는 양적 연구 수행을 위해 여러 가지 실험설계 방법들 중 유사실험 또는 준실험 설계의 방법 중 하나인 '단일집단 전후검사 설계'를 적용하였다. 이러한 실험설계 방법을 적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유사실험 또는 준실험 설계방법들 중 실험설계의 여러 제약 조건들을 고려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 설계 시점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었다. 즉, 현장수요연구 수행 기관 선정과 관련해 당초 계획했던 훈련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또한 부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한 로뎀직업재활센터에서 현장훈련을 실시하다보니, 부산광역시 남쪽 지역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참여가 힘든 지리적 제약도 있었다. 이 외에 본 연구의 대상을 전환기 발달장애인과 어머니로 한정하다보니 30대 이후의 구직 욕구가 있는 발달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의 어머니가 작업지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하는 연구방법론적 제약도 있었다. 이러한 여러 제약사항들을 고려했을 때 연구 대상자에 대한 무선표집이 필요한 진실험설계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고, 유사실험 또는 준실험 설계방법들 중에서도 2개의 실험집단을 구성하거나 실험효과 측정을 자주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단일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계방법중 비교적 실험처치의 효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단일집단 전후검사 설계를 적용하게 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해 다양한 질적 연구 접근방법론들 중 '현상학적 연구'의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질적 연구 접근방법을 적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질적 연구 대상은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들이다. 이들 어머니는 당초 훈련계획상 5명이 선정될 예정이었다. 또한 이들은 작업지도원으로서 현장훈련에 투입되어 자신의 자녀를 작업지도할 예정이어서 공통적인 경험을 갖게 된다. 이들 어머니는 또한 전환기 발달장애인을 자녀로 두고 있고, 이들의 직업재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통된 고민을 갖고 있기도 하다. 본 연구가 질적 연구를 통해 밝혀내려는 점도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어머니가 동일한 일터에 소속되어 발달장애인인 자신의 자녀를 작업지도하면서 체험한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었다. 이상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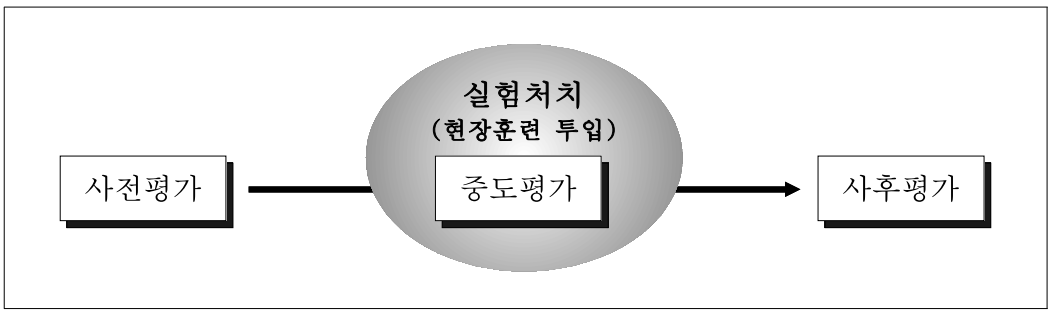
험을 공유해 온 10명 내외의 개인이 갖고 있는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적합한 질적 연구 접근방법론이 현상학적 연구였다. 아울러 질적 연구는 철학적 가정과 해석적·이론적 틀을 갖추어야 하는데, 본 연구는 존재론적 신념과 사회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어머니가 공유한 작업지도원으로서의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설계

1. 양적 연구의 설계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적 연구 수행을 위해 '단일집단 전후검사 설계'를 적용하였다. 사전검사는 현장훈련 투입 전에 실시하였고, 현장훈련 도중 1회의 검사를 추가하였으며, 현장훈련 종료 직후 사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림 Ⅲ-1>과 같이 실험설계를 하였다.



<그림 Ⅲ-1> 실험설계 모형

본 연구에서의 실험처치는 전문기관에서 개발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프로그램과 함께 자체 개발한 현장훈련 프로그램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직업 기능 수준이 향상되는지 여부를 타당화된 측정도구를 활용해 실험설계의 효과성을 검증할 것이다. 이 같은 본 연구의 양적 실험설계 모형에 입각해 다음과 같은 지시적 가설을 본 연구는 설정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양적 연구 가설: 작업지도원으로서 같은 일터에 고용된 어머니의 작업지도를 받은 발달장애인의 직업 기능 수준은 작업지도를 받기 전보다 좋아질 것임을 가정한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연구 대상자는 전환기 발달장애인 5명과 그들의 어머니이다. 발달장애인과 어머니 2인을 1개조로 편성하였으므로, 총 연구 대상 인원은 10명이다. 이들은 <표 Ⅲ-1>과 같은 모집 계획에 의해 모집되었다.

<표 Ⅲ-1> 연구 대상자 모집 계획

구분	내용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록을 한 전환기 장애인 중 장애유형이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이고, 장애등급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직업기능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는 자 ▪ 발달장애인 및 어머니 모두 미취업 상태에 있고, 구직 욕구가 강한 자
모집 방법	▪ 지역사회 특수학교, 특수학급, 직업재활시설 등의 취업담당자 연락처 수집 후 유선으로 모집 안내

<표 Ⅲ-1>과 같은 모집 계획에 따라 연구 대상자를 모집한 결과 <표 Ⅲ-2>와 같이 5개조가 모집되었다.

<표 Ⅲ-2> 연구 대상자 모집 결과

연번	발달장애인				어머니 (작업지도원)		거주지
	성명	장애유형	장애등급	연령	성명	연령	
1	김**	자폐성장애	2급	18세	장**	44세	부산시 연제구
2	오**	지적장애	2급	21세	박**	42세	부산시 사상구
3	이관*	자폐성장애	2급	26세	이**	53세	부산시 북구
4	이희*	지적장애	2급	20세	부**	46세	부산시 진구
5	정**	지적장애	1급	24세	김**	46세	부산시 북구

<표 Ⅲ-2>를 살펴보면, 전환기 발달장애인 5명은 자폐성장애 2명, 지적장애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장애등급은 2급이 4명, 1급이 1명이었다. 이들의 연령은 최고 26세에서 최저 18세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연령은 21.8세였다. 이들의 어머니로 구성된 작업지도원 5명의 연령은 최고 53세에서 최저 42세로 구성되어 있고, 평균연령은 46.2세였다. 거주지는 로뎀직업재활센터가 소재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북구인 연구 대상자가 2개조였고, 북구와 인접해 있는 연

제구, 사상구, 진구가 각각 1개조였다.

한편, 5명의 전환기 발달장애인 연구 대상자 중 이희*은 현장 투입 후 5일차 되던 날 어머니인 부**이 상담을 요청해와 상담을 실시하였는데, 상담 결과 이희*의 거주지에서 현장훈련실시기관인 로뎀직업재활센터까지 원거리여서 통근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근거리에 취업처가 있어 본 연구의 대상자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역량강화교육에 해당 발달장애인 및 어머니가 2회 이상 참여한 상태였으므로, 이희*을 연구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보다는 통제집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본 연구 수행에 효과적일 것이라 판단하여 추적관찰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을 어머니인 부**에게 요청하였고, 적극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이희*을 현장 투입에서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현장훈련 최종회까지 모든 과정을 이수한 연구 대상자는 김**와 그의 어머니 장** 등 총 4개조, 8명이었다.

3) 측정도구 및 기초선 측정

본 연구의 대상자에 대해 실험처치 전후의 직업 기능 수준 파악을 위해 본 연구가 활용한 측정도구는 총 2가지이다. 하나는 '미네소타 손기민성 검사도구'였고, 나머지 하나는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도구'였다. 이 2가지 측정도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적용방법은 <표 Ⅲ-3>과 같다.

<표 Ⅲ-3> 측정도구의 내용 및 적용방법

구분	측정도구에 대한 설명
미네소타 손기민성 검사	■ 미네소타대학의 직업심리학자들이 개발한 검사도구로서 Sammons Preston 사가 제조한 Minnesota Manual Dexterity Test 사용 ■ 표준화 검사도구로서 눈-손 협응력, 팔과 손의 움직임을 측정. 손의 민첩성 측정을 위해 통상 5단계 테스트 실시(위치에 놓기-돌리기-옮기기-한손으로 돌리고 놓기-두손으로 돌리고 놓기) ■ 본 연구에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해 검사 중의 행동관찰, 옮기기 검사 및 뒤집기 검사 수행 속도를 측정해 분석 ■ 평균 차원은 보호고용 목표 직업적응훈련생, 지적장애인 근로자, 비장애인 수준에서 평가 가능. 본 연구에서는 경쟁고용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지적장애인 근로자 수준에서 평가
직업기능 스크리닝 검사	■ 김동일 등이 2013년 타당화한 검사 도구 ■ 작업기능, 인지·문제해결기능, 신체·자립기능을 측정한 후 T점수로 표준화 ■ 3가지 측정 영역의 직업적 장애 기준 준거점수를 산출해 그 합계점수로 직업기능의 전반적 수준을 판정

<표 Ⅲ-3>의 측정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선을 측정하되, 현장수요연구의 사업 개시 시점의 지연, 연구 대상자 모집 지연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보다 현장연구 투입기간이 단축되어 현장연구 수행팀에 의한 기초선 측정은 1회만 실시하였다. 이를 보완해 보다 객관적인 기초선 파악을 위해 연구 대상자가 소속된 직업재활센터의 유사검사 자료를 수집해 기초선 파악에 활용하였다.

한편, 기초선 구축에 활용하기 위해 2가지 측정도구로 사전평가를 2015년 9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먼저 미네소타 손기민성 사전평가 결과는 <표 Ⅲ-4>와 같다. 아울러 사전평가는 로뎀직업재활센터 직업능력평가 담당 직업재활교사가 수행하였다.

<표 Ⅲ-4> 미네소타 손기민성 사전평가 결과

연번	성명	평가 결과 및 소견
1	김**	**- 행동관찰** 의사소통 시 평가사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주변을 계속적으로 살피는 등 다소 산만함. 언어적인 지시와 시범이 제공되더라도 여러 번의 연습과 설명 후 과제수행이 가능하였으며, 평가 중 의미없는 언어 사용이 많음 평가사의 제지가 있을 시 "하면 안돼요."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였으나 평가 중 본인의 고집대로 행동하여 수행시간이 길어짐 **- 결과 및 종합소견** 검사 결과, 옮겨놓기 검사에서 1차, 2차 합계가 각각 108초, 102초, 210초의 수행도를 보였으며 뒤집기 검사는 3회 시도 모두 오류로 평가가 중단되어 데이터적인 결론은 도출해 내기 불가능함. 전반적인 손 기민성은 보호고용 목표 직업적응훈련생 평균 수준으로 판단됨. 돌발행동을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먼저 습득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오**	**- 행동관찰** 의사소통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나, 평가사의 설명이 있을 때 집중하지 않고 평가사만 쳐다보거나 불필요한 대화를 시도하는 등 다소 산만한 모습을 보임. 평가 중간 중간 "너무 지루하다.", "재미있어요."라는 말을 하는 모습이 관찰됨 **- 결과 및 종합소견** 검사 결과, 옮겨놓기 검사에서 3회 시도 모두 오류로 인해 평가를 중단하였으며, 뒤집기 검사에서도 마찬가지로 3회 시도 모두 오류로 평가가 중단되어 데이터적인 결론은 도출해 내기 불가능함

(계속)

연번	성명	평가 결과 및 소견
3	이관*	**– 행동관찰** 의사소통은 대체로 원활히 이루어졌으나 단답형식의 의사소통이 가능하였음. 언어적인 지시와 시범이 제공되면 과제수행이 가능하였으며 평가 중 의미 없는 언어 사용이 많지 않은 편이었음 **– 결과 및 종합소견** 검사 결과, 옮겨놓기 검사에서 1차, 2차 합계가 각각 87초, 73초, 160초, 뒤집기 검사에서 1차, 2차 합계가 각각 59초, 56초, 1115초의 수행도를 보였음
4	이희*	**– 행동관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나 본인의 의사를 다소 작은 목소리로 소극적으로 말하고, 이와 비슷한 패턴으로 소극적 태도와 행동을 하는 것이 관찰됨. 자신의 우세 손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언어적인 지시와 시범 및 연습이 제공되면 과제수행이 가능하였으나 매우 느리게 수행하는 모습이 관찰됨 **– 결과 및 종합소견** 검사 결과, 옮겨놓기 검사에서 1차, 2차 합계가 각각 124초, 98초, 222초의 수행도를 보였으며 뒤집기 검사는 3회 시도 모두 오류로 평가가 중단되어 데이터적인 결론을 도출해 내기 불가능함
5	정**	**– 행동관찰**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나 본인의 의사를 얘기할 때까지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 평가사가 다독이며 기다려줘야 함. 언어적인 지시와 시범 및 연습이 제공되면 과제수행이 가능하였으나 다소 더디게 수행하는 모습이 관찰됨 **– 결과 및 종합소견** 검사 결과, 옮겨놓기 검사에서 1차, 2차 합계가 각각 111초, 102초, 213초의 수행도를 보였으며 뒤집기 검사는 3회 시도 모두 오류로 평가가 중단되어 데이터적인 결론은 도출해 내기 불가능함

<표 Ⅲ-4>의 사전평가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 대상자인 전환기 발달장애인 5명은 모두 손기민성 평가[1]를 제대로 실시할 수 없을 정도로 수행도가 극히 낮게 나타나 직업 기능적 측면에서 최중증의 발달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이관*를 제외한 나머지 연구 대상자인 발달장애인 김**, 오**, 이희*, 정**은 종합소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검사 오류로 평가가 중단되어 데이터적인 결론을 도출해내기 어려울 정도였다. 이러한 수행도 평가의 오류 발생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평가사의 관찰에 기초한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표 Ⅲ-5>는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 결과이다.

1) 연구 대상자들에게 미네소타 손기민성 평가를 실시한 장면은 [부록1] '평가 및 훈련 활동 사진' 참고

<표 Ⅲ-5>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 사전평가 결과

연번	성명	검사 결과 및 소견
1	김**	10점(작업기능), 6점(인지·문제해결기능), 22점(신체·자립 기능)을 받아 T점수가 각각 28점, 26점, 38점으로 영역별 T점수의 합이 92점으로 나타남. 이에 직업적 장애 기준에 따라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판정할 수 있음. 또한 직업적 장애 기준 준거점수가 0,0,1에 해당하며 세 영역의 준거점수의 합이 1이므로 **'보호고용 전환 대상자'**로 판정할 수 있음
2	오**	19점(작업기능), 17점(인지·문제해결기능), 23점(신체·자립 기능)을 받아 T점수가 각각 39점, 41점, 39점으로 영역별 T점수의 합이 119점으로 나타남. 이에 직업적 장애 기준에 따라 **'직업적 중증장애'**로 판정할 수 있음. 또한 직업적 장애 기준 준거점수가 1,1,1에 해당하며 세 영역의 준거점수의 합이 3이므로 **'보호고용 전환 대상자'**로 판정할 수 있음
3	이관*	18점(작업기능), 15점(인지·문제해결기능), 29점(신체·자립 기능)을 받아 T점수가 각각 38점, 39점, 48점으로 영역별 T점수의 합이 125점으로 나타남. 이에 직업적 장애 기준에 따라 **'직업적 중증장애'**로 판정할 수 있음. 또한 직업적 장애 기준 준거점수가 1,1,2에 해당하며 세 영역의 준거점수의 합이 4이므로 **'보호고용 전환 대상자'**로 판정할 수 있음
4	이희*	27점(작업기능), 20점(인지·문제해결기능), 28점(신체·자립 기능)을 받아 T점수가 각각 49점, 46점, 47점으로 영역별 T점수의 합이 142점으로 나타남. 이에 직업적 장애 기준에 따라 **'직업적 중증장애'**로 판정할 수 있음. 또한 직업적 장애 기준 준거점수가 2,2,2에 해당하며 세 영역의 준거점수의 합이 6이므로 **'보호고용 대상자'**로 판정할 수 있음
5	정**	28점(작업기능), 19점(인지·문제해결기능), 29점(신체·자립 기능)을 받아 T점수가 각각 50점, 44점, 48점으로 영역별 T점수의 합이 142점으로 나타남. 이에 직업적 장애 기준에 따라 **'직업적 중증장애'**로 판정할 수 있음. 또한 직업적 장애 기준 준거점수가 2,1,2에 해당하며 세 영역의 준거점수의 합이 5이므로 **'보호고용 전환 대상자'**로 판정할 수 있음

<표 Ⅲ-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 5명 중 4명이 직업적 중증장애로 분류되었고, 나머지 1명은 직업적 장애 수준이 더 낮은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직업적 장애 기준 준거점수의 합을 통해 판정할 때 발달장애인 5명 중 4명은 보호고용 전환 대상자였고, 나머지 1명은 보호고용 대상자로 분류되었다. 이상과 같이 중증장애인의 직업 기능 수준 파악을 위해 타당화된 2가지 측정도구를 활용해 연구 대상자인 전환기 발달장애인 5명에 대해 직업 기능 수준을 측정한 결과 전반적으로 당장 취업을 해서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직업 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프로그램 구안 및 적용

본 연구의 실험처치를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은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현장훈련 프로그램이다. 각각의 프로그램 구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데, 이는 전환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것과 작업지도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구분해 구안하였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개발한 <표 Ⅲ-6>의 발달장애인 대상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현장훈련 투입 전 사전훈련의 형태로 2015년 9월 8일에서 11일까지 총 4일간 1일 4시간씩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을 2년간 적용한 경험이 있는 위촉연구원으로 선정하였고, 위촉연구원이 로뎀직업재활센터 회의실에 방문해 1개 모듈을 1일씩 4일간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표 Ⅲ-6> 발달장애인 대상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

구분	주제	내용
1일차	내 직업 찾아보기	■ 자기소개와 우리들의 약속 ■ 내가 좋아하는 직업(직업흥미) ■ 일한 경험 나누기 ■ 좋아하는 직업 알아보기
2일차	취업을 위한 기술	■ 이력서 만들기 ■ 면접 준비하기 ■ 이미지 메이킹 ■ 모의면접
3일차	직장생활 이해하기	■ 직업에 대한 이해 ■ 직장생활에 대한 이해 ■ 직장 예절
4일차	직장에서 적응하기	■ 소통을 위한 기초 ■ 자기 옹호의 기초 ■ 자기 옹호하기 ■ 소중한 나 지키기 ■ 수료식

작업지도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본 연구팀이 자체 개발한 <표 Ⅲ-7>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적용하였고, 사전훈련 마지막 날인 2015년 9월 11일에 오리엔테이션을 거친 후 현장훈련 기간 동안 매주 1~2회 2시간씩 총 8회기에 걸쳐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는 작업지도원

대상 사전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있는 위촉연구원으로 선정하였고, 위촉연구원이 로뎀직업재활센터 회의실에 방문해 진행하였다.

<표 Ⅲ-7> 작업지도원 대상 역량강화프로그램

교육 주제	내용
현장훈련에 관한 일반적 정보	- 본 연구의 목적 및 절차 안내 - 현장훈련의 정의 및 목적 - 현장훈련 일정 - 재활서비스 제공에서의 통합의 중요성
장애인고용정책	-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법제 및 정부 정책 -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이해
의사소통 기술	- 원활한 의사소통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 원활한 의사소통 과정 실습
발달장애인 관련 정보	- 발달장애인의 장애 특성과 기능적 제한 등(평가 소견 참고) - 훈련생 지도 시 고려사항 - 부모로서 어머니의 개입 정도
사업체 및 훈련직무에 관한 지식	- 훈련시설의 일반적 사항(직무분석조사표 참고) - 훈련 직무 및 작업환경의 특성
작업지도원의 역할 및 지도 내용	- 현장훈련에서의 작업지도원의 중요성 - 응급상황 및 직무조정 사안에 대한 보고 방법 - 구체적인 지도 내용의 숙지

참고로 작업지도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안에 발달장애인들은 독립 훈련을 실시하였다.

한편, 현장훈련 프로그램은 <표 Ⅲ-8>과 같이 구안해 실시하였다. 현장훈련 프로그램은 로뎀직업재활센터에 소속된 근로자 및 훈련생과 같은 작업 장소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들 근로자 및 훈련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일상생활 적응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구안하였다.[2] 이 프로그램은 2015년 9월 14일부터 11월 13일까지 9주에 걸쳐 적용되었고, 추석과 한글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총 42회기에 걸쳐 적용되었다. 훈련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고, 중도에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훈련시간은 총 4시간이었다. 현장훈련 프로그램 적용 중 특이사항은 <표 Ⅲ-8>의 세부사항에 명시하였다.

2) 현장훈련 프로그램은 연구 대상자의 현장훈련 투입 전 자문회의를 통해 자문을 구해 일부 수정한 후 최종 구안된 것인데, 자문회의 내용은 [부록2] '자문회의 결과' 참고

<표 Ⅲ-8> 현장훈련 프로그램

○ 1주차

횟수	날짜	시간	실 습 내 용	세 부 사 항
1회	9/14 (월)	10:00~12:00	현장수요 연구 소개, 직원 인사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미네소타 손 기민성 검사 실시	각 대상자의 손 기민성 및 직무 지시 이해도에 대한 부족한 부분 파악
2회	9/15 (화)	10:00~12:00	조례 및 직업기능 스크리닝 검사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직업기능 검사, 스크리닝 검사. 결과에 대한 개별 상담 실시	직업재활사 2명 참여
		13:00~15:00	작업지도원 교육	
3회	9/16 (수)	10:00~12:00	작업활동 프로그램 참여	손 기민성 향상, 인지력 평가를 위한 작업활동 프로그램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소독 방역 작업 실습	소독 분무기 사용 순서 및 분사 방법 (보호자:소독 방역 이론교육 병행)
4회	9/17 (목)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이론 교육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소독 방역 작업 실습	소독 분무기 사용 순서 및 분사 방법
5회	9/18 (금)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작업 실습	소독 분무기 사용 순서 및 분사 방법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작업활동 프로그램 참여	손 기민성 향상, 인지력 평가를 위한 작업활동 프로그램

○ 2주차

횟수	날짜	시간	실 습 내 용	세 부 사 항
6회	9/21 (월)	10:00~12:00	조례 및 청소용역업에 대한 개괄적 설명	본 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청소용역업 시청각교재 활용하여 설명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키즈카페 볼풀 공 세척 작업(청소직무 수행)	오염된 볼풀 공을 전문 세척 장비를 활용하여 깨끗하게 위생 소독하기
7회	9/22 (화)	10:00~13:00	소독 방역 현장 견학 및 실습(중식)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남포·광복동 지하도 상가)
		13:00~15:00	작업지도원 교육	
8회	9/23 (수)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및 청소 작업 실습	청소업종에 필요한 장비 사용법 교육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키즈카페 볼풀 공 세척 작업(청소직무 수행)	오염된 볼풀 공을 전문 세척 장비를 활용하여 깨끗하게 위생 소독하기
9회	9/24 (목)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및 청소 작업 실습	청소업종에 필요한 장비 사용법 교육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작업활동 프로그램 참여	손 기민성 향상, 색 구별 등 인지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10회	9/25 (금)	10:00~12:00	조례 및 영화관람(센터 내) -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참여	국제시장 관람 및 소감나누기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작업지도원들과의 간담회	

○ 3주차

횟수	날짜	시간	실 습 내 용	세 부 사 항
–	9/28 (월)		추석연휴	
–	9/29 (화)		추석연휴	
11회	9/30 (수)	10:00~12:00	조례 및 직무수행 평가지 작성 요령 설명	수동분무기와 보호 장비 착용 평가 대비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방역 보호 장비 착용 연습 및 소독 방역 작업	반복작업으로 작업순서 숙지
12회	10/1 (목)	10:00~12:00	조례 및 방역 보호 장비 착용 연습	반복작업으로 작업순서 숙지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금전관리 훈련 및 신문을 이용한 NIE 활동	물건 값 계산하기/신문지에서 해당되는 것 찾아 오려 붙이기
13회	10/2 (금)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및 청소 작업 실습	노즐 세척 중요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방역 보호 장비 착용 연습	

○ 4주차

횟수	날짜	시간	실 습 내 용	세 부 사 항
14회	10/5 (월)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및 청소 작업 실습	직무내용 정확히 수행 중요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소독 방역 작업 실습	미흡한 부분 집중적으로 수행
15회	10/6 (화)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및 청소 작업 실습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작업지도원 교육	
16회	10/7 (수)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및 청소 직무평가 및 피드백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소독 방역 및 청소 작업 실습	미흡한 부분 집중적으로 수행 (단계별로 세분화 시켜서 과업수행)
17회	10/8 (목)	09:00~14:00	지역사회적응훈련	영화관람 (탐정:더비기닝) 및 외부 식당 이용
		14:00~15:00	작업지도원 간담회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논의
-	10/9 (금)		한글날	

○ 5주차

횟수	날짜	시간	실 습 내 용	세 부 사 항
18회	10/12 (월)	10:00~12:00	조례 및 현장 실습 준비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소독 방역 및 청소 현장 실습	부산시 금정구 스포원 현장 활동
19회	10/13 (화)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및 청소 작업 실습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작업지도원 교육	질의응답
20회	10/14 (수)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및 청소 작업 실습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청소직무능력 재 숙지 및 학습	작업지도원 대상으로 전문 장비 활용
21회	10/15 (목)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및 청소 작업 실습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청소직무능력 재 숙지 및 학습	작업지도원 대상으로 전문 장비 활용
22회	10/16 (금)	10:00~12:00	조례 및 독감예방접종 -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참여	구포성심병원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소독 방역 및 청소업 실습	
		14:00~15:00	직업스크리닝 제2차 검사 실시	

○ 6주차

횟수	날짜	시간	실 습 내 용	비 고
23회	10/19 (월)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및 청소 작업 실습	세분화된 활동을 재구성해서 전체적인 흐름과 직무 파악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청소직무 수행 실습	오염된 볼풀 공 전문세척장비로 세척 및 소독
24회	10/20 (화)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및 청소 작업 실습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작업활동 프로그램 참여	스티커를 비뚤어지지 않게 붙이기
25회	10/21 (수)	10:00~12:00	조례 및 지역사회적응훈련	베데스다 정기연주회(음악회 참여)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소독 방역 및 청소 작업 실습	
26회	10/22 (목)	10:00~12:00	조례 및 독 방역 및 청소 작업 실습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직업적응훈련	
27회	10/23 (금)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작업 실습	수동 분무기 연습과 방역 복 착용 연습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방역 보호 장비 착용 연습 및 소독 방역 작업	반복 작업으로 작업순서 숙지

○ 7주차

횟수	날짜	시간	실 습 내 용	세 부 사 항
28회	10/26 (월)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작업 실습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소독 방역 및 현장 실습	사직역, 종합운동장역, 거제역
29회	10/27 (화)	10:00~12:00	작업활동 프로그램 참여	손 기민성 향상, 인지력 평가를 위한 작업활동 프로그램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작업지도원 교육	
30회	10/28 (수)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작업 실습	수동 분무기 연습과 방역 복 착용 연습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방역 보호 장비 착용 연습 및 소독 방역 작업	반복 작업으로 작업순서 숙지
31회	10/29 (목)	10:00~12:00	조례 및 작업활동 프로그램 참여	손 기민성 향상, 인지력 평가를 위한 작업활동 프로그램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작업활동 프로그램 참여	색 구분 및 간지 끼워 넣기
32회	10/30 (금)	10:00~12:00	조례 및 방역 보호 장비 착용 연습 및 소독 방역 작업	반복 작업으로 작업순서 숙지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소독 방역 및 청소 작업 실습	

○ 8주차

횟수	날짜	시간	실 습 내 용	세 부 사 항
33회	11/02 (월)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및 청소 작업 실습	반복 작업으로 작업순서 숙지
		12:00~13:00	점심식사	
		13:00~17:00	소독 방역 및 청소 현장 실습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
34회	11/03 (화)	10:00~13:00	-	전일 현장실습 작업으로 오전 휴무
		13:00~15:00	작업지도원 교육	
35회	11/04 (수)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작업 실습	안정장비 착탈의 지속적 연습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청소 작업 실습	작업 기계 작동 및 전 과정 숙지
36회	11/05 (목)	10:00~12:00	조례 및 청소 작업 실습	청소업종에 필요한 장비 사용법 교육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청소 작업 현장 실습	천연가스 본부 사택 입주청소
37회	11/06 (금)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및 청소 작업 실습	작업 기계 전 과정 숙지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작업지도원 교육	

○ 9주차

횟수	날짜	시간	실 습 내 용	세 부 사 항
38회	11/09 (월)	10:00~12:00	조례 및 소독 방역 및 청소 작업 실습	청소업종에 필요한 장비 사용법 교육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소독 방역 및 청소 작업 실습	청소업종에 필요한 장비 사용법 교육
39회	11/10 (화)	10:00~12:00	소독·방역 직무수행 평가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작업지도원 교육/ 미네소타 손 기민성 검사	
40회	11/11 (수)	10:00~12:00	작업활동 프로그램 참여	손 기민성 향상, 색 구별 등 인지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작업활동 프로그램 참여	손 기민성 향상, 색 구별 등 인지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41회	11/12 (목)	09:00~13:00	지역사회적응훈련 프로그램 (중식)	2015 국제 게임전시회 관람 및 식당이용
		13:00~15:00	작업활동 프로그램 참여	손 기민성 향상, 색 구별 등 인지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42회	11/13 (금)	10:00~12:00	조례 및 작업지도원 인터뷰 / 직업기능 스크리닝 검사	
		12:00~13:00	점심식사	
		13:00~15:00	작업지도원 인터뷰 및 마무리	센터 종사자 및 이용자들과의 인사

5) 분석방법

미네소타 손기민성 검사를 통해 옮기기 검사와 뒤집기 검사 결과를 언어척도, 스테나인척도, 퍼센타일로 구분해 제시하였고, 퍼센타일을 활용해 기초선과 현장훈련 투입 후 향상도를 그래프를 통해 도식화해 살펴보았다. 직업기능 스크리닝 검사를 통해 작업기능, 인지·문제해결기능, 신체·자립기능 검사 결과를 원점수, T점수, 준거점수로 구분해 제시하였고, T점수를 활용해 기초선과

현장훈련 투입 후 향상도를 그래프를 통해 도식화해 살펴보았다. 전반적인 직업 기능의 향상 수준은 퍼센트로 변환해 수치화해 제시하였다.

2. 질적 연구의 설계

전환기 발달장애인 일터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현장훈련 투입 후 작업지도원으로서 활동한 발달장애인의 어머니의 경험을 면접과 관찰을 통해 자료 수집하여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에 따라 질적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질적 연구를 설계하였다.

1) 표본

본 연구에 참여한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로서 작업지도원으로 참여한 5명으로 구성된 유의 표본을 현상학적 연구에 참여하게 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6.3세였고, 본 연구 참여 전 모두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전업주부였다. 5명 모두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었고, 기혼자였다. 이들 중 1명만이 현재 배우자와 별거 중인 상태였다.

2) 연구설계

현상학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현상을 깊은 수준에서 이해하기 위해 이전 지식과 경험을 유보하거나 초월해야 한다(Merleau-Ponty, 1956). 이에 따라 질적 연구를 수행한 공동연구원 및 위촉연구원은 자신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가지게 된 이전의 지식과 경험을 유보하고, 자신의 신념과 감정을 제쳐 놓아 지각이 현상에 더욱 개방적이고 충실할 수 있도록(Streubert & Carpenter, 1999) 괄호치기를 의식적으로 행하였다.

3) 자료의 수집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일터 적응을 위해 작업지도원으로 참여한 발달장애인의 어머니의 작업지도원 역할 수행에 따른 공통된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관찰과 면접을 실시하여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접 수행 시에는 <표 Ⅲ-9>와 같이 구조화된 설문지를 제작해 면접 자료를 수집하였

다. 아울러 질적 연구 수행 자료의 포화를 기하기 위해 위촉연구원이 별도로 발달장애인 어머니와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 추가 자료를 통신상에서 수집하였다.

<표 Ⅲ-9> 작업지도원 대상 면접 설문지

1. "작업지도원으로서 어머니가 참여하는 전환기 발달장애인 일터개발"을 위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발달장애인 자녀와 어머니를 같은 장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의 작업지도뿐만 아니라 정서 관리까지 같이 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직업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 목적이 원활히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답형 응답을 할 경우 더 자세히 이야기 해줄 것을 요청할 것)
2. 처음 이 프로그램 참여를 제안 받았을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3. 처음 작업지도를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과 감정이 들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4. 어머니께서 직접 작업지도를 실시한 후 어머니의 자녀에게 어떠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나요?
5. 어머니께서 직접 작업지도를 실시한 후 어머니의 자녀에게 어떠한 부정적 변화가 일어났나요?
6. 자녀와 함께 같은 일터(직장)에 나오게 되면서 어머니 자신에게 어떠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나요?
7. 자녀와 함께 같은 일터(직장)에 나오게 되면서 어머니 자신에게 어떠한 부정적 변화가 일어났나요?
8. 자녀와 함께 같은 일터(직장)에 나오게 되면서 어머니의 가정에 어떠한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나요?
9. 자녀와 함께 같은 일터(직장)에 나오게 되면서 어머니의 가정에 어떠한 부정적 변화가 일어났나요?
10. 작업지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깨닫게 된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11. 작업지도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부딪쳤던 문제는 무엇입니까?
12.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 발달장애인이 취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14.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한 것이 있었나요?
15. 저에게 혹시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4) 자료 분석

Colaizzi(1978)가 제안하는 방법에 따라 축어록을 작성한 후 이를 분석에 활

용하였다. 작업지도원의 경험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을 연구자가 체득할 수 있을 때까지 서면화된 축어록을 여러 차례 읽었고, 개별 축어록으로부터 작업지도원 역할 수행에 대한 체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의미한 어구 혹은 문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였다. 아울러 의미 있는 진술과 어구에 집중해 작업지도원 역할 수행에 대한 체험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자 노력하였다. Meadows와 Morse(2001)에 따르면, 현상학적 연구에 있어 방법론적 엄격성은 검증, 타당성, 타당도를 통해 달성하게 되는 바, 본 연구설계의 타당성 입증에 필요한 검증을 위해 관련 문헌 고찰, 현상학적 연구 방법의 준수, 연구자의 과거 경험 괄호치기, 현장 노트 기록, 자료 포화 시까지 면접하기 등을 실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질적연구의 방법론적 엄격성을 추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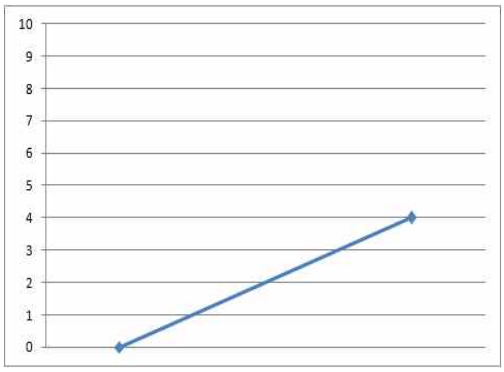
Ⅳ. 결과 분석

1. 양적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전환기 발달장애인 일터개발 프로그램에 따른 현장훈련 투입 후 대상 발달장애인의 직업 기능 향상 수준을 객관화된 측정도구를 활용해 측정한 뒤 계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미네소타 손기민성 검사 결과

미네소타 손기민성 검사 중 옮기기 검사의 결과를 각 연구 대상자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김**의 평가 결과 및 옮기기 수행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1>과 같다. 김**는 2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최초 측정 결과에서 언어척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스테나인척도는 0, 퍼센타일 0이었다. 2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언어척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스테나인척도는 1, 퍼센타일은 4였다. 옮기기 평가 퍼센타일은 최초 0에서 최종 4로 향상률 399.9%인 것으로 나타났다.[3] 김**는 보호고용 목표 직업적응훈련생 수준에서 볼 경우에는 평균 수준을 보였다.



옮기기 수행 수준 추이

구분	-	9/14	11/13
언어척도	-	매우 낮음	매우 낮음
스테나인척도	-	0	1
퍼센타일	-	0	4

<그림 Ⅳ-1> 김**의 옮기기 수행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3) 향상률 계산 시 분모가 0이어서 무한대 값이 나오므로, 편의상 최초 퍼센타일을 0.01로 설정해 계산하였다.

오**는 옮기기 평가 시 3회 오류 발생으로 측정이 불가한 수준이었다.

이관*의 평가 결과 및 옮기기 수행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2>와 같다. 이관*은 3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최초 측정 결과에서 언어척도는 평균 수준이었고, 스테나인척도는 4, 퍼센타일 37이었다. 2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언어척도는 평균 수준이었고, 스테나인척도는 4, 퍼센타일은 31이었다. 3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언어척도는 높은 수준이었고, 스테나인척도는 7, 퍼센타일은 82였다. 옮기기 평가 퍼센타일은 최초 37에서 31로 낮아졌으나 최종 82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향상률은 1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은 보호고용 목표 직업적응훈련생 수준에서 볼 경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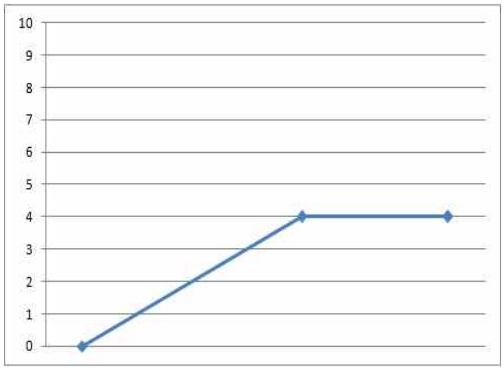
옮기기 수행 수준 추이

구분	6/8	9/14	11/13
언어척도	평균	평균	높음
스테나인척도	4	4	7
퍼센타일	37	31	82

<그림 Ⅳ-2> 이관*의 옮기기 수행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정**의 평가 결과 및 옮기기 수행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3>과 같다. 정**은 3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최초 측정 결과에서 언어척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스테나인척도는 0, 퍼센타일 0이었다. 2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언어척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스테나인척도는 1, 퍼센타일은 4였다. 3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언어척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스테나인척도는 1, 퍼센타일은 4였다. 옮기기 평가 퍼센타일은 최초 0에서 4로 향상된 후 최종 4를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향상률은 399.9%인 것으로 나타났다.[4] 정**은 보호고용 목표 직업적응훈련생 수준에서 볼 경우에는 평균 수준을 보였다.

4) 향상률 계산 시 분모가 0이어서 무한대 값이 나오므로, 편의상 최초 퍼센타일을 0.01로 설정해 계산하였다.



옮기기 수행 수준 추이

구분	6/8	9/14	11/13
언어척도	매우 낮음	매우 낮음	매우 낮음
스테나인척도	0	1	1
퍼센타일	0	4	4

<그림 Ⅳ-3> 정**의 옮기기 수행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한편, 미네소타 손기민성 검사 중 뒤집기 검사의 결과를 각 연구 대상자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김**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Ⅳ-4>와 같다. 김**는 1회 측정만 가능하였는데, 최종 측정 결과에서 언어척도는 평균 수준이었고, 스테나인척도는 4, 퍼센타일 39였다. 뒤집기 평가 퍼센타일은 최초 평가 시에는 측정 불가였으나, 최종 4로 측정되었다. 김**는 보호고용 목표 직업 적응훈련생 수준에서 볼 경우에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측정 불가 후 최종회 측정

옮기기 수행 수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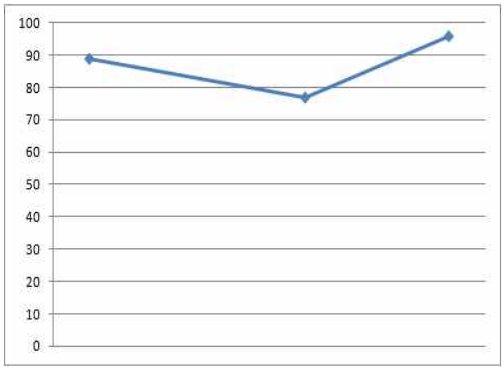
구분	-	9/14	11/13
언어척도	-	매우 낮음	매우 낮음
스테나인척도	-	0	1
퍼센타일	-	0	4

<그림 Ⅳ-4> 김**의 옮기기 수행 수준 평가 결과

오**는 뒤집기 평가 시 3회 오류 발생으로 측정이 불가한 수준이었다.

이관*의 평가 결과 및 뒤집기 수행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5>와

같다. 이관*은 3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최초 측정 결과에서 언어척도는 높은 수준이었고, 스테나인척도는 7, 퍼센타일 89였다. 2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언어척도는 평균 수준이었고, 스테나인척도는 6, 퍼센타일은 77이었다. 3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언어척도는 높은 수준이었고, 스테나인척도는 8, 퍼센타일은 96이었다. 뒤집기 평가 퍼센타일은 최초 89에서 77로 낮아졌으나 최종 96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향상률은 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관*은 보호고용 목표 직업적응훈련생 수준에서 볼 경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였다.



뒤집기 수행 수준 추이

구분	6/8	9/14	11/13
언어척도	높음	평균	높음
스테나인척도	7	6	8
퍼센타일	89	77	96

<그림 Ⅳ-5> 이관*의 뒤집기 수행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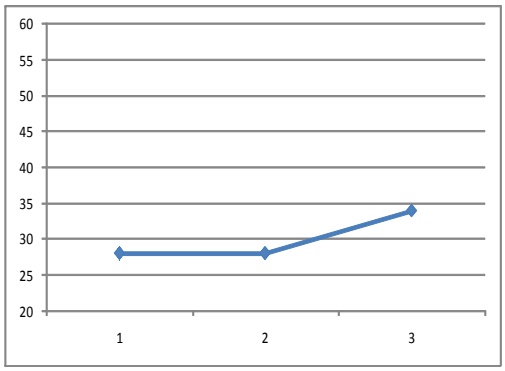
정**의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Ⅳ-6>과 같다. 정**은 1회 측정만 가능하였는데, 최종 측정 결과에서 언어척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스테나인척도는 0, 퍼센타일 0이었다. 뒤집기 평가 퍼센타일은 최초 평가 시에는 측정 불가였으나, 최종 0으로 측정되었다. 정**은 보호고용 목표 직업적응훈련생 수준에서 볼 경우에는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측정 불가 후 최종회 측정	구분	6/8	9/14	11/13
	언어척도	–	–	매우 낮음
	스테나인척도	–	–	0
뒤집기 수행 수준 추이	퍼센타일	–	–	0

<그림 Ⅳ-6> 정**의 뒤집기 수행 수준 평가 결과

2)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 결과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 중 작업기능 검사의 결과를 각 연구 대상자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김**의 평가 결과 및 작업기능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7>과 같다. 김**는 3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최초 측정 결과에서 원점수는 10, T점수는 28, 준거점수는 0이었다. 2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10, T점수는 28, 준거점수는 0이었다. 3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15, T점수는 34, 준거점수는 1이었다. 작업기능 수준 T점수는 최초 28에서 최종 34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향상률은 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점수 또한 최초 0에서 최종 1로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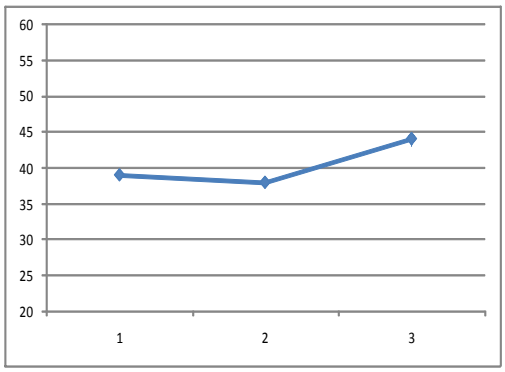


작업기능 수준 추이

구분	9/16	10/16	11/13
원점수	10	10	15
T점수	28	28	34
준거점수	0	0	1

<그림 Ⅳ-7> 김**의 작업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오**의 평가 결과 및 작업기능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8>과 같다. 오**는 3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최초 측정 결과에서 원점수는 19, T점수는 39, 준거점수는 1이었다. 2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18, T점수는 38, 준거점수는 1이었다. 3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23, T점수는 44, 준거점수는 1이었다. 작업기능 수준 T점수는 최초 39에서 최종 44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향상률은 12.8%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점수는 최초 1에서 최종 1로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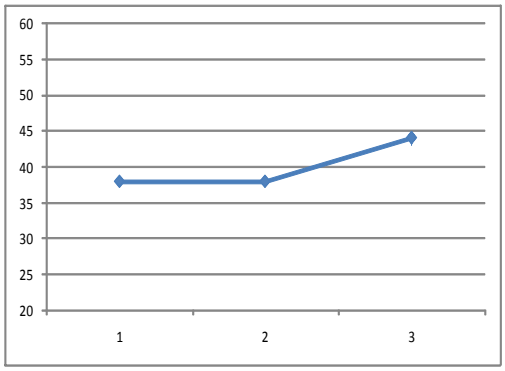


작업기능 수준 추이

구분	9/16	10/16	11/13
원점수	19	18	23
T점수	39	38	44
준거점수	1	1	1

<그림 Ⅳ-8> 오**의 작업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이관*의 평가 결과 및 작업기능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9>와 같다. 이관*은 3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최초 측정 결과에서 원점수는 18, T점수는 38, 준거점수는 1이었다. 2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18, T점수는 38, 준거점수는 1이었다. 3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23, T점수는 44, 준거점수는 1이었다. 작업기능 수준 T점수는 최초 38에서 최종 44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향상률은 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점수는 최초 1에서 최종 1로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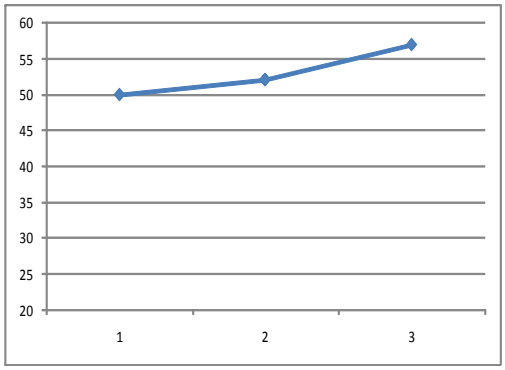


작업기능 수준 추이

구분	9/16	10/16	11/13
원점수	18	18	23
T점수	38	38	44
준거점수	1	1	1

<그림 Ⅳ-9> 이관*의 작업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정**의 평가 결과 및 작업기능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10>과 같다. 정**은 3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최초 측정 결과에서 원점수는 28, T점수는 50, 준거점수는 2였다. 2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29, T점수는 52, 준거점수는 2였다. 3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33, T점수는 57, 준거점수는 3이었다. 작업기능 수준 T점수는 최초 50에서 최종 57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향상률은 1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점수 또한 최초 2에서 최종 3으로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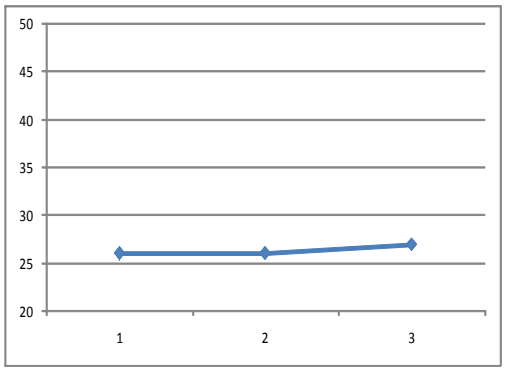
작업기능 수준 추이

구분	9/16	10/16	11/13
원점수	28	29	33
T점수	50	52	57
준거점수	2	2	3

<그림 Ⅳ-10> 정**의 작업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다음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 중 인지·문제해결기능 검사의 결과를 각 연구대상자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김**의 평가 결과 및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11>과 같다. 김**는 3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최초 측정 결과에서 원점수는 6, T점수는 26, 준거점수는 0이었다. 2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6, T점수는 26, 준거점수는 0이었다. 3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7, T점수는 27, 준거점수는 0이었다.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T점수는 최초 26에서 최종 27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향상률은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점수는 최초 0에서 최종 0으로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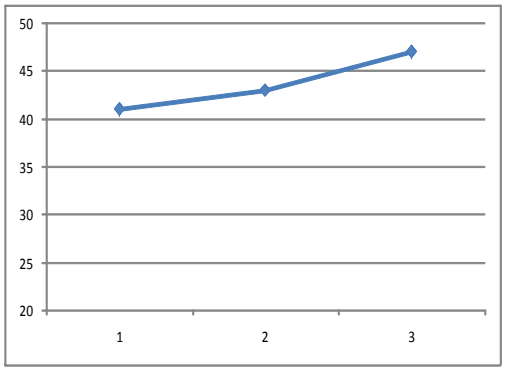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추이

구분	9/16	10/16	11/13
원점수	6	6	7
T점수	26	26	27
준거점수	0	0	0

<그림 Ⅳ-11> 김**의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오**의 평가 결과 및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12>와 같다. 오**는 3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최초 측정 결과에서 원점수는 17, T점수는 41, 준거점수는 1이었다. 2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18, T점수는 43, 준거점수는 1이었다. 3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21, T점수는 47, 준거점수는 2였다.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T점수는 최초 41에서 최종 47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향상률은 14.6%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점수 또한 최초 1에서 최종 2로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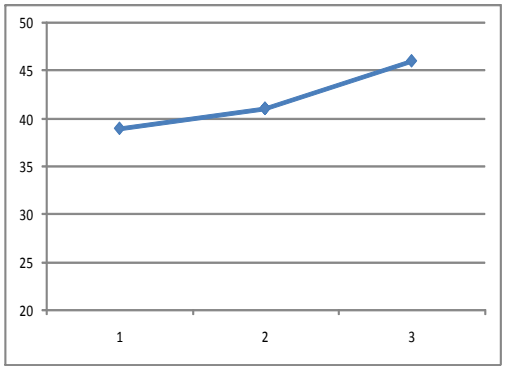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추이

구분	9/16	10/16	11/13
원점수	17	18	21
T점수	41	43	47
준거점수	1	1	2

<그림 Ⅳ-12> 오**의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이관*의 평가 결과 및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13>과 같다. 이관*은 3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최초 측정 결과에서 원점수는 15, T점수는 39, 준거점수는 1이었다. 2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16, T점수는 41, 준거점수는 1이었다. 3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20, T점수는 46, 준거점수는 2였다.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T점수는 최초 39에서 최종 46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향상률은 17.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점수 또한 최초 1에서 최종 2로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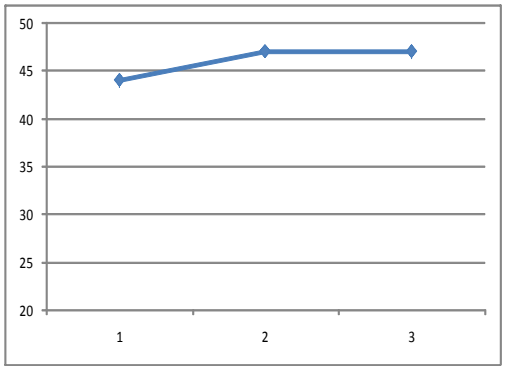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추이

구분	9/16	10/16	11/13
원점수	15	16	20
T점수	39	41	46
준거점수	1	1	2

<그림 Ⅳ-13> 이관*의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정**의 평가 결과 및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14>와 같다. 정**은 3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최초 측정 결과에서 원점수는 19, T점수는 44, 준거점수는 1이었다. 2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21, T

점수는 47, 준거점수는 2였다. 3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21, T점수는 47, 준거점수는 2였다.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T점수는 최초 44에서 최종 47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향상률은 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점수 또한 최초 1에서 최종 2로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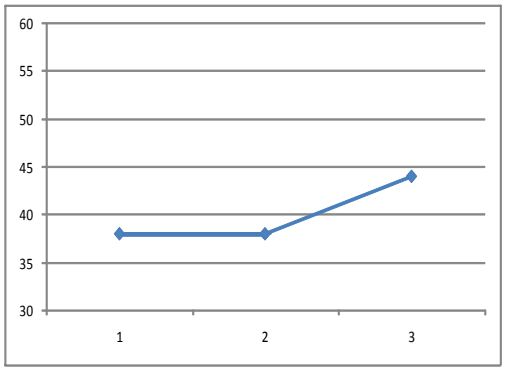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추이

구분	9/16	10/16	11/13
원점수	19	21	21
T점수	44	47	47
준거점수	1	2	2

<그림 Ⅳ-14> 정**의 인지·문제해결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마지막으로,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 중 신체·자립기능 검사의 결과를 각 연구 대상자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김**의 평가 결과 및 신체·자립기능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15>와 같다. 김**는 3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최초 측정 결과에서 원점수는 22, T점수는 38, 준거점수는 1이었다. 2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22, T점수는 38, 준거점수는 1이었다. 3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26, T점수는 44, 준거점수는 1이었다. 신체·자립기능 수준 T점수는 최초 38에서 최종 44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향상률은 15.8%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점수는 최초 1에서 최종 1로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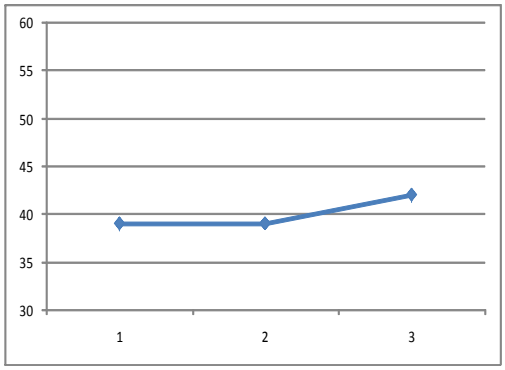


신체·자립기능 수준 추이

구분	9/16	10/16	11/13
원점수	22	22	26
T점수	38	38	44
준거점수	1	1	1

<그림 Ⅳ-15> 김**의 신체·자립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오**의 평가 결과 및 신체·자립기능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16>과 같다. 오**는 3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최초 측정 결과에서 원점수는 23, T점수는 39, 준거점수는 1이었다. 2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23, T점수는 39, 준거점수는 1이었다. 3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25, T점수는 42, 준거점수는 1이었다. 신체·자립기능 수준 T점수는 최초 39에서 최종 42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향상률은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점수는 최초 1에서 최종 1로 유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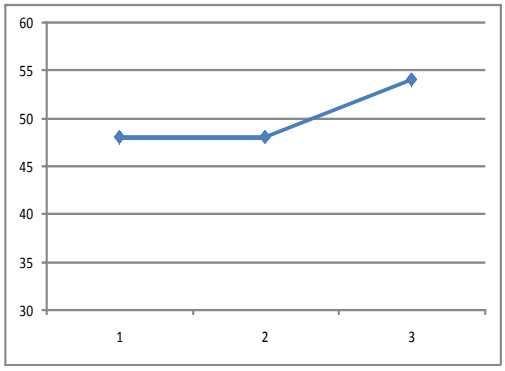
신체·자립기능 수준 추이

구분	9/16	10/16	11/13
원점수	23	23	25
T점수	39	39	42
준거점수	1	1	1

<그림 Ⅳ-16> 오**의 신체·자립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이관*의 평가 결과 및 신체·자립기능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17>과 같다. 이관*은 3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최초 측정 결과에서 원점수는 29, T점수는 48, 준거점수는 2였다. 2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29, T점수는

48, 준거점수는 2였다. 3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33, T점수는 54, 준거점수는 3이었다. 신체·자립기능 수준 T점수는 최초 48에서 최종 54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향상률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점수 또한 최초 2에서 최종 3으로 향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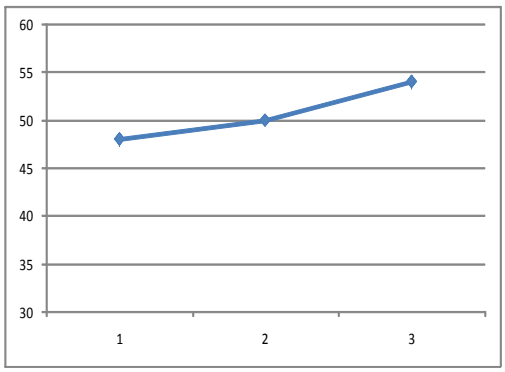


신체·자립기능 수준 추이

구분	9/16	10/16	11/13
원점수	29	29	33
T점수	48	48	54
준거점수	2	2	3

<그림 Ⅳ-17> 이관*의 신체·자립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정**의 평가 결과 및 신체·자립기능 수준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Ⅳ-18>과 같다. 정**은 3회 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최초 측정 결과에서 원점수는 29, T점수는 48, 준거점수는 2였다. 2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30, T점수는 50, 준거점수는 2였다. 3회차 측정 결과에서는 원점수는 33, T점수는 54, 준거점수는 3이었다. 신체·자립기능 수준 T점수는 최초 48에서 최종 54로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향상률은 12.5%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거점수 또한 최초 2에서 최종 3으로 향상되었다.



신체·자립기능 수준 추이

구분	9/16	10/16	11/13
원점수	29	30	33
T점수	48	50	54
준거점수	2	2	3

<그림 Ⅳ-18> 정**의 신체·자립기능 수준 평가 결과 및 추이

3) 논의

미네소타 손기민성 옮기기 검사 측정 결과 연구 대상자 '이관*'은 기초선에 비해 초기 평가 시 다소 감소하였으나, 최종 평가에서 121.6% 향상되었고, '김**', '정**'도 최종 평가에서 399.9% 향상되었다. 다만, '오**'는 검사 시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측정 불가 상태로 판정되었다. 뒤집기 검사 측정 결과 연구 대상자 '이관*'은 기초선에 비해 초기 평가 시 다소 감소하였으나, 최종 평가에서 7.9% 향상되었다. '김**'와 '정**'은 측정 오류로 기초선 파악과 초기 평가가 불가능하였으나, 최종 평가에서 '김**'는 평균 수준을 보였고, '정**'은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다. 다만, '오**'는 검사 시 지속적으로 오류가 발생하여 측정 불가 상태로 판정되었다.

이상의 연구 대상자 4명은 손기민성 검사를 통해 일부 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으나, 대부분 측정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자가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만큼 직업기능 측면에서 최중증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안적 측정도구가 필요하였고, 수행평가가 아닌 관찰평가가 가능한 한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를 통해 작업기능을 측정한 결과 연구 대상자 4명은 모두 초기 평가 대비 최종 평가 향상률이 최저 12.8%에서 최고 21.4%까지 나타났다. 작업기능의 평균 향상률은 1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문제해결기능 측정 결과에서는 연구 대상자 4명은 모두 초기 평가 대비 최종 평가 향상률이 최저 3.8%에서 최고 17.9%까지 나타났다. 인지·문제해결기능의 평균 향상률은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자립기능 측정 결과에서는 연구 대상자 4명은 모두 초기 평가 대비 최종 평가 향상률이 최저 7.7%에서 최고 15.8%까지 나타났다. 신체·자립기능의 평균 향상률은 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 결과 본 연구의 현장훈련 투입 후 작업기능이 가장 크게 향상되었고, 그 다음은 신체·자립기능, 인지·문제해결기능 순으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투입한 결과 연구 대상자의 작업기능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이점은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의 3가지 수준 모두 대체로 첫 번째 달보다 두 번째 달에 향상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현장훈련이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직업기능 향상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작업지도원 투입의 효과성을 보다 정밀하게 검증하

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초선의 구축, 새롭게 설계된 프로그램의 투입 등을 통해 ABCD의 연구 설계에 기초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2. 질적 연구 결과

현장훈련에 최종 참여한 전환기 발달장애인 5명의 어머니로부터 작업지도원 역할 수행의 경험에 관한 면접 자료를 정리하여 4개의 개별축어록을 얻었고, 관찰 자료 및 추가 수집 자료를 한 데 묶어 의미 있는 진술 총 65개를 도출하였다. 이 65개의 의미 있는 진술들을 보다 큰 의미를 담는 범주로 묶어 정리한 결과 총 4개의 주제군이 드러났다. 각 주제별로 질적 성과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주제1: 부정적 마음 추스르기

작업지도원들은 작업지도 업무를 모두 처음 수행하게 되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현장훈련 투입 전 매우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어느 작업지도원이 이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막막했었다.”

작업지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많은 교육과 경험을 쌓아야 하는데, 이 같이 사전에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지도원들은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작업지도원들은 작업지도원의 역할 수행을 하기 시작한 초반에 공통적으로 부정적 마음이 생겨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했다.

“처음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했다. 새로운 장소에 대한 낯설음이 오래 지속되는 성향이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을 많이 했다.”

“처음에는 많이 불안했고, 힘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학교에 대한 미련이 많아서 처음에는 작업장을 가는 것을 거부했었는데, 이런 이유로 처음에는 두려움, 거부감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누구든 처음 맡은 역할 수행에 대한 두려움, 불안, 거부감, 낯설음 등의 감정을 갖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 작업지도원의 역할을 처음 수행하게 된 이들 또한 이러한 부정적 마음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작업지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이 주기적으로 진행되면서 점차 이러한 부정적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하였고, 자신이 새롭게 경험하게 된 작업지도원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점차 강하게 갖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작업지도의 대상이 자신의 자녀라는 점에서 안도감을 찾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다.

2) 주제2: 내 아이의 가능성 발견하기

작업지도원들은 현장훈련 투입 이전이나 현장훈련 투입 초기까지만 해도 자신의 아이가 입직하는 데 어떠한 장벽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공통적으로 피력하였다. 그러나 같은 일터에서 자신의 아이와 근무하게 되면서 다른 발달장애인에 비해 직업능력상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되었고, 자신의 생각보다 낮은 수준의 직업 기능을 갖고 있음에 대해 다소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는 작업지도원도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작업지도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나타난 가장 큰 성과는 자신의 아이가 마냥 부족한 점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발전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작업지도원으로서가 아니라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희망을 갖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 작업지도를 하는 와중에 발견된 자신의 아이의 가능성은 심리적 안정감이 첫출발이 되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심리적 안정감의 중요성을 강조한 어느 작업지도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 “○○는 로뎀직업재활센터에서 예전에도 일을 해 본 경험이 있다. 그래서인지 엄마와 함께 센터에 간다는 것을 처음에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계속 엄마와 같은 장소에서 일하게 되면서 엄마와 함께 일한다는 것이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 같았다. 그것이 일을 하는 데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발달장애인의 입직에 있어 중요한 걸림돌 중 하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일 수 있다. 대중교통을 혼자 이용하지 못하다보니 재학 중 통학의 어려움을 많이 겪은 발달장애인 어머니일수록 향후 취업 시 독립적으로 통근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고민을 토로하는데, 어느 작업지도원은 자신의 아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서 변화가 생겼음을 기뻐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의 경우에는 처음에 혼자서 지하철을 타지도 못했는데, 로뎀직업재활센터에 매일 오가면서 이제는 능숙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것에 처음에 매우 놀라웠다. 사회성이 아주 많이 향상되었다는 느낌이 든다. ○○가 당연히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스스로 해내는 것을 보고 많이 놀라웠다."

발달장애인은 대개의 경우 자신의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만,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타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의사 표현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작업지도원은 또박또박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의 변화를 감지하기도 하였다. 어느 작업지도원은 의사 표현의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예전에 ○○는 본인의 손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집에 와서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렸는데, 이제는 '엄마 이건 그래서 잘 안 되고, 기분 나빴어요.'라고 본인 의사를 밝힌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엄마 출근해야 되는데 빨리 챙기세요.'라고 이야기하며 모범을 보이며 엄마를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위 이야기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의사 표현 변화에서 부수적으로 표출된 또 다른 긍정적 변화는 어머니의 출근을 챙길 정도로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는 점인데, 의사 표현의 적극성이 소통을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 것에 대해 어느 작업지도원은 매우 만족스러운 느낌을 연구원에게 이야기하였다.

발달장애인 아이의 가장 놀라운 변화로 취업에 대한 의지가 강화되었음을 이야기하는 작업지도원도 있었다. 자신의 아이가 취업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취업을 하겠다는 아이의 의사 표현을 접했을 때 어느 작업지도원은 매우 격앙된 어투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가 학교 다니는 것을 워낙 좋아해서 일을 한다는 것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이제는 ○○ 본인이 직접 '취업은 해야지.'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서 매우 놀랐다."

작업지도원은 모두 공통적으로 2달간 어머니와 함께 일터에서 경험한 모든 것을 통해 자신의 아이가 현장훈련 투입 전에 비해 많이 성장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가 2달 사이에 '많이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느꼈다."

3) 주제3: 양가감정 경험하기

작업지도원들은 작업지도를 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양가감정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보인다. 가장 두드러진 양가감정으로 작업지도원 역할 수행에 대한 긍정적 기대와 어머니로서의 역할 병행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들 수 있다. 자신의 자녀를 일터에서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작업지도원 스스로에 대한 기대감은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확연히 드러난다.

"○○가 일하는 모습을 직접 본 적은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을 해내는지 알지 못해 두려움이 있었다. ○○가 어떠한 공정을 할 때 힘들어하고, 잘 안 되는 이유와 더 발전되지 못하는 이유가 궁금했었다. 그래서 '내가 직접 자녀와 함께 활동하고 가르쳐 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작업지도원이 아닌 어머니로서 기존에 갖고 있던 역할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담감은 작업지도원들의 자녀에 의해 비롯되었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처럼 잔소리를 하는 사람으로만 비춰지는 작업지도원의 역할 때문에 일터에서 자신의 아이에게 싫은 소리를 듣게 되고, 이로 인해 심리적 부담감이 커지는 사례가 현장훈련 초기에 자주 일어났다. 이에 대해 어느 작업지도원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지루한 작업을 엄마이기에 계속적으로 시켰다. 우리 아이가 왜 작업능력이 떨어지는지 알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반복 시켰다. 하지만 계속 반복적 작업을 시키는 엄마에게 '로뎀직업재활센터에 이제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초반에는 엄마에게 서운한 얘기를 자주 표출했다. 엄마가 1 대 1로 지도하는 데 많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작업지도원들은 자신의 아이와의 애착관계가 클수록 일터에서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가능성이 커짐을 느끼고 또 다른 심리적 부담감에 노출되기도 하였다. 어느 작업지도원은 아이와의 애착관계와 관련해 생긴 심리적 부담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엄마와 아이가 너무 친하기 때문에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의 경우 나와의 애착관계가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이 지시하면 일을 수행하는 데 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장애인 혼자 할 수 있어야 하지 언제까지 내가 해 줄 수는 없는 일이라는 생각도 했다."

작업지도원들의 또 다른 양가감정으로 신체·생활상의 변화에 대한 불만과 긍정적 적응을 통한 만족을 들 수 있다. 작업지도원으로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까지 직업경험이 전무했던 이들은 작업지도원의 역할을 행하면서 자신의 아이와 함께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그 결과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노동이었음을 언급하였다. 아울러 작업지도원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2개월 동안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일터에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지인들과의 교류 시간이 부족해짐으로써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갱년기에 나이도 있는 편이라 초반에 체력적으로 매우 힘이 들었다."

"평소 친분을 쌓고 지내던 다른 학부모들과 교류할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작업지도원들의 신체·생활상의 변화에 대한 불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진적으로 줄어들었는데, 규칙적인 생활과 반복되는 신체 활동으로 인해 체력적으로 더욱 건강해지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로 인해 생활상의 활력을 찾게 되었다는 긍정적 반응도 있었다. 어느 작업지도원은 부족한 체력을 보완하기 위해 귀가 후 별도의 운동을 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다음의 이야기는 작업지도원들이 긍정적 적응을 통해 만족을 얻게 된 결과를 표현한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적인 면에서 많이 좋아진 것 같고, 갱년기라 항상

집에서 누워만 있었는데 활동을 함으로써 더 활기를 찾은 것 같다.”

“일을 하면서 체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것 역시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작업지도원들은 본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모두 전업주부로 살아왔기 때문에 전업주부로서의 역할 수행에 따른 양가감정을 갖기도 하였다. 그 양가감정은 가족들의 불편함 호소에 대한 미안함과 가족들의 전폭적 협조에 대한 고마움을 들 수 있다. 작업지도원들의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은 자신의 부재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였고, 이러한 가족들의 호소로 인해 작업지도원들은 다음과 같이 미안한 마음이 자주 들었다고 이야기하였다.

“부인의 부재 자체에 대해 우리 남편의 경우 불편해 하는 모습이 있었다.”

“살림이 비교적 등한시 되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미안함이 있다.”

그러나 작업지도원들의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말끔히 씻어줄 정도의 가족들의 전폭적인 협조도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다. 배우자가 스스로 밥을 하거나, 가족들이 서로서로 챙겨주는 등 여러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본 연구에 참여한 후 가족들이 많이 협조해 주고 챙겨주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특히, 어느 작업지도원은 배우자의 변화에 대해 놀라운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아이 아빠의 경우 전형적인 경상도 남자라 무뚝뚝하고, 일체 집안일을 도와주는 법이 없었는데, 이제는 스스로 밥도 뜨고, 많이 도와주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다.”

4) 주제4: 또 다른 부정적 마음의 용솟음

현장훈련이 종료된 시점에 작업지도원들은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해하였으나, 처음 작업지도원의 역할을 수행할 당시처럼 또 다른

불안감, 걱정, 우려를 갖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이렇게 생겨난 또 다른 부정적 마음을 작업지도원들은 잘 추스르지 못하는 듯 보였고, 2개월간 쌓인 확신이 다시 불신으로 이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어느 작업지도원의 부정적 마음은 함께 일하는 일터에서 공존하는 다른 발달장애인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생겨났는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작업장에 같이 일하는 직원들 중에 어머니가 없는 아이도 있을 수 있고, 혹은 우리 엄마도 같이 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진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 아이와 취업이 되어 같은 직장을 다니게 된다면, 다른 발달장애인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을까 걱정된다."

어느 작업지도원은 자신이 원래 전업주부임을 망각하지 않으려 애쓰는 듯한 인상을 보이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집안 살림이 소홀해질까봐 걱정되어 선뜻 아이와 일하러 나서는 데 두려움이 생긴다."

4명의 작업지도원들 중 3명은 향후 작업지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다는 의견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였다.

"솔직히 더 이상 작업지도원으로 활동할 자신이 없다."

다만, 1명의 작업지도원은 자신감이 여전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의 아이에게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의사 및 감정과는 상관없이 작업지도원의 임무를 계속 수행할 용의가 있음을 피력하였다. 한편, 연구자들은 본 연구의 프로그램 설계 당시 현장훈련을 4개월 이상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작업지도원들은 2~3개월의 기간이면 충분하다는 인식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다. 장기간의 훈련이 오히려 훈련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2~3개월의 훈련기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훈련기간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오히려 득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5) 질적 분석을 끝내며

질적 연구 대상자 4명의 어머니들은 작업지도원의 역할을 처음 수행하면서 두려움, 불안감, 낮은 자기효능감 등으로 인해 작업지도원 직무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작업지도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현장훈련에서 작업지도원 실무에 대한 수행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부정적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하였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작업지도원의 역할을 적극성을 띠고 행하게 되면서부터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아이의 직업적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하였고, 직업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작업지도원으로서의 역할 수행도의 향상이 발달장애인의 직업 기능 수준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동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을 것이라 판단된다.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투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였으나, 향후 동일한 과업 수행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양가감정은 전업주부로서의 과거 역할에 대한 부정적 회귀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데, 실제로 현장훈련 종료 후 어머니들은 현장훈련 투입 전 가졌던 부정적 마음이 또 다시 용솟음치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또 다른 부정적 마음의 용솟음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작업지도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역할 전환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작업지도원으로서의 역할 전환을 충실히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전업주부로 돌아가고자 하는 부정적 회귀 현상을 막을 수 없어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참여시켜 발달장애인의 성공적 입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이 제대로 달성되지 못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 취업 확대에 관한 선행연구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소독·방역, 상주 청소의 서비스 직종을 개발해 전환기 발달장애인을 채용한 뒤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함께 고용해 직업 훈련 및 적응 과정을 도움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어머니가 작업지도원으로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투입효과성을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를 혼합한 혼합적 연구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양적 연구 수행을 위해 전환기 발달장애인 5명과 그들의 어머니 5명을 연구 대상자로 모집한 후 '단일집단 전후검사 설계'를 적용하였다. 구체적인 실험설계 모형은 전문기관에서 개발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재구성한 프로그램과 자체 개발한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실험처치하고, 사전・중도・사후평가를 실시하여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직업 기능 향상 수준 측면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양적 연구의 가설을 '작업지도원으로서 같은 일터에 고용된 어머니의 작업지도를 받은 발달장애인의 직업 기능 수준은 작업지도를 받기 전보다 좋아질 것임을 가정한다.'로 설정하였다. 발달장애인 대상 구직역량강화프로그램은 사전훈련 형태로 총 4일간 1일 4시간씩 적용하였고, 작업지도원 대상 역량강화프로그램은 현장훈련이 실시된 9주 동안 매주 1~2회 2시간씩 총 8회기를 적용하였다. 현장훈련 프로그램은 9주에 걸쳐 총 42회기를 적용하였는데, 훈련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였고, 중도에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훈련시간은 총 4시간이었다.

연구 대상인 발달장애인 중 1명이 중도 탈락한 가운데 최종 4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미네소타 손기민성 검사와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를 사용해 직업 기능 수준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 대상자 4명은 손기민성 검사를 통해 일부 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고, 수준 향상이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측정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 대상자가 수행평가를 실시할 수 없을 만큼 직업기능 측면에서 최중증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대안적 측정도구가 필요하였고, 수행평가가 아닌 관찰평가가 가능한 한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를 통해 작업기능을 측정한 결과 연구 대상자 4명은

모두 초기 평가 대비 최종 평가 향상률이 최저 12.8%에서 최고 21.4%까지 나타났다. 작업기능의 평균 향상률은 1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문제해결기능 측정 결과에서는 연구 대상자 4명은 모두 초기 평가 대비 최종 평가 향상률이 최저 3.8%에서 최고 17.9%까지 나타났다. 인지·문제해결기능의 평균 향상률은 1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자립기능 측정 결과에서는 연구 대상자 4명은 모두 초기 평가 대비 최종 평가 향상률이 최저 7.7%에서 최고 15.8%까지 나타났다. 신체·자립기능의 평균 향상률은 12.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 결과 본 연구의 현장훈련 투입 후 작업기능이 가장 크게 향상되었고, 그 다음은 신체·자립기능, 인지·문제해결기능 순으로 향상되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투입한 결과 연구 대상자의 작업기능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어 양적 연구의 가설은 채택되었다. 특이점은 직업기능스크리닝 검사의 3가지 수준 모두 대체로 첫 번째 달보다 두 번째 달에 향상률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연구 대상자의 현장훈련이 상당기간 지속된다면 직업기능 향상 수준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질적 연구 수행을 위해 작업지도원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어머니 4명을 대상으로 관찰, 면접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한 후 현상학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질적 연구 수행 결과 의미 있는 진술 총 65개를 도출하였고, 이를 보다 큰 의미의 범주로 묶어 정리한 결과 총 4개의 주제군이 드러났다. 첫 번째 주제는 부정적 마음 추스르기였다. 두 번째 주제는 내 아이의 가능성 발견하기였다. 세 번째 주제는 양가감정 경험하기였다. 네 번째 주제는 또 다른 부정적 마음의 용솟음이었다. 이상의 4개의 주제군에 대한 질적 분석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질적 연구 대상자 4명의 어머니들은 작업지도원의 역할을 처음 수행하면서 두려움, 불안감, 낮은 자기효능감 등으로 인해 작업지도원 직무의 성공적 수행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태였으나, 작업지도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고 현장훈련에서 작업지도원 실무에 대한 수행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부정적 마음을 추스르기 시작하였고 성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작업지도원의 역할을 적극성을 띠고 행하게 되면서부터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자신의 아이의 직업적 가능성을 발견하기 시작하였고, 직업 기능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투입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 경험을 공유하였으나, 향후 동일한 과업 수행에 대해서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양가감정은 전업주부로서의 과거 역할에 대한 부정적 회귀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데, 실제로 현장훈련 종료 후 어머니들은 현장훈련 투입 전 가졌던 부정적 마음이 또 다시 용솟음치는 경험을 공유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혼합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전환기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직종의 일터 개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작업지도원으로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같은 일터에 투입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의 직업 기능 수준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에서도 발달장애인의 직업 기능 수준 향상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제언

전환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작업지도원으로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투입한 서비스 직종의 일터 개발을 위한 본 연구 수행을 통해 실증된 양적, 질적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 입안자, 발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고용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환기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활용해 같은 일터에 투입하는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양적, 질적 실증을 통해 본 연구가 구안한 현장훈련 프로그램이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직업 기능을 향상시킴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직업 기능 향상을 적극적으로 이끈 것은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활용한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이 현재 장애인직업재활정책에 있어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본 연구의 현장훈련 프로그램과 유사한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은 작업지도원[5]으로 사회복지나 직업재활 등의 유사 학문 전공자나 사업체 경력자를 선정하고 있다. 감정 관리 미흡, 일상생활 처리기술 부족 등 발달장애인만이 갖고 있는 제반 특성과 발달장애인의 개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할 때 이들의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가장

5)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 수행 지침에서는 작업지도원 대신 직무지도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잘 대처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정책 입안자는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해 전환기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활용해 같은 일터에 투입하는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제도화하고, 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환기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훈련기간의 설정, 작업지도원의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의 구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장훈련 프로그램은 2개월 간 수행되었는데, 질적 연구 분석 결과에서는 2개월의 기간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지원고용사업을 감안할 때 2개월보다 더 긴 훈련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작업지도원 대상의 구조화된 프로그램 구축과 관련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어머니가 장애인직업재활에 대한 기초 소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들을 현장훈련에 투입하기 전에 작업지도원으로서의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식과 정보를 보다 철저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정책은 장애인 당사자 개인을 위한 정책에서 종합적인 가족지원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일반적인 직업재활정책은 장애인 당사자 개인에 초점을 맞춰 수립되고 시행된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특히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경우 직업을 갖지 못하고 실업 상태에 빠져 있게 되면, 발달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들의 가족 또한 발달장애인 보호에 경제적·심리적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됨으로써 다양한 문제에 노출되는 것은 이미 여러 실증적 연구를 통해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정책은 가족중심의 종합적인 지원 정책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는 본 연구의 대상자처럼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들 어머니는 자신의 자녀인 발달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취업을 시도하는 것은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시도한 바와 같이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발달장애인과 함께 같은 일터에 작업지도원으로 배치한 후 현장훈련에 참여시키고, 나아가 이들이 함께 같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 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가정의 가사가 원활히 수행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를 위해 가사도우미를 배치하는 등의 사회서비스를 함께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이 수립되어 시행된다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직업재활정책뿐만 아니라 비경제활동 및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정책, 발달장애인 가족을 위한 사회보장정책 등의 융합을 통해 높은 수준의 정책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환기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전문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전환기 발달장애인의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수행하였다. 그러나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이러한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할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설계할 발달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가,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어머니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적용할 집단상담 전문가, 발달장애인의 직업 기능 수준을 평가할 직업능력평가사,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적용할 직업재활교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문 인력을 모두 갖추고 있는 장애인직업재활센터는 현실적으로 드물다. 따라서 별도의 전문기관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법체계상으로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전환기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훈련 프로그램 실시 전문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아직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못하지만, 오히려 이 센터 설치를 추진하는 지금의 시기가 더 적정한 시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법정 임무뿐만 아니라 전환기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훈련 프로그램 실시 임무도 부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차선책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 전 프로그램으로 중증장애인지원고용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이미 20년 이상 되고 다양한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전환기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인적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전환기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활용하는 현장훈련 프로그램이 실질적인 고용 성과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기관과의 적극적 연계가 필요하다.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현장훈련 프로그램 실시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어 운영될 경우 현장훈련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는 있겠지만, 현장훈련을 수료한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어머

니를 함께 취업시킬 구인자원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게 된다. 현장훈련 프로그램 적용의 최종적 목적은 단순히 직업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있지 않으며, 입직에 성공했을 때 이 프로그램의 최종 목적은 달성된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인자원을 충분히 갖고 있는 공적·사적 고용서비스기관과의 연계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연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장훈련 프로그램 수립 초기에 프로그램 투입 대상자의 특성, 현장훈련에서 다루어질 직무 등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고용서비스기관과 공유하고, 현장훈련 프로그램 실시시관이 현장훈련을 실시하는 동안 고용서비스기관은 현장훈련 프로그램 수료자의 고용 의뢰에 대비해 미리 현장훈련에서 다루어진 직무를 활용할 수 있는 구인사업체와 알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 다음 현장훈련 프로그램이 완전히 수료된 직후 구인사업주에게 취업알선하여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절차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최근 고용노동부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해 취업성공패키지에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조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양적, 질적 분석 결과를 통해 전환기 발달장애인과 이들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활용해 같은 일터에 투입하는 현장훈련 프로그램이 발달장애인의 직업 기능 향상에 기여한다는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나,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어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시간적 제약, 지리적 제약, 연구방법론적 제약 등으로 인해 유사실험 또는 준실험 설계의 방법 중 하나인 단일집단 전후검사 설계를 적용하였는데, 보다 정밀한 실험설계를 통해 본 연구의 현장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재차 검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연구 대상자를 전국 단위로 무선표집하여 진실험설계를 수행하거나, 새로운 기초선의 구축과 새롭게 설계된 프로그램의 투입 등을 통해 ABCD의 실험설계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작업지도원으로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현장훈련에 투입하였는데, 현장훈련 초기 작업지도원에 대한 역할 인식이 불명확해서 발달장애인이 수행하는 작업을 대신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작업지도원인 어머니의 작업 대행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수단의 예시로서 작업지도원 대상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적용 초기에 작업 대행과 관련된 금지규정을 제작해 숙지시킨 후 현장훈련에 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동선·신진숙. 성인발달장애인 직업중심 평생교육 모델에 관한 기초 연구. 발달장애연구, 19(1), 1-22.

고용개발원(2014). 2014 장애인 통계. 성남: 고용개발원.

김경우(2008). 사회복지조사론. 서울: 도서출판 두남.

김동일·박희찬·홍성두·유완식·고혜정·이재호·김경선(2013). 직업기능 스크리닝 검사의 타당성 연구. 장애와 고용, 23(3), 35-55.

김병진·소재진·김항곤(2013).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도서출판 신정.

김영종(2011). 사회복지 조사방법론. 서울: 학지사.

김정우·양심영(2011). 사회복지조사론. 파주: 양서원.

김진호(2006). 정신지체학생의 지역사회직업훈련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지역사업체 인식조사. 특수교육학연구, 41(1), 39-57.

김호엽(1999). 발달장애인의 지원고용을 위한 프로그램의 구성과 전략탐색.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환철·최희순(2010).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대왕사.

박현옥(2011). 지역사회중심 직업교육이 성인 지적장애인의 지역사회 활용기술과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발달장애연구, 15(2), 79-94.

안태희(2003). 발달장애 및 정서장애의 직업재활 프로그램개발연구. 장애와 고용, 13(2), 99-121.

양희택·유경미·백민희(2014). 경기도 발달장애청년 직업재활 사업 분석 연구: '나는 카페'(마사회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수원: 경기복지재단.

오길승(2003). 직업재활 분야에서 본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특수학교 직업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특수교육학연구, 38(3), 99-131.

오길승(2006). 정신지체 등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실태 및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서 1차 산업 분야가 지니는 장점. 직업재활연구, 16(1), 5-25.

오길승(2009). 지적 및 자폐성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농업분야의 가능성 탐색. 특수교육연구, 16(2), 283-308.

이동영·김희정(2014). 보호고용수준의 지적장애인에 대한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이 직업생활능력 향상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탐색적 고찰: S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2, 1-25.

Babbie, E.(1983). *The practice of social research*(3rd ed.). Belmont, California: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Colaizzi, P. F.(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 (Eds.),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in psychology* (pp.48-71).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Meadows, L. M., & Morse, J. M.(2001). Constructing evidence within the qualitative project. In J. M. Morse, J. M. Swansen, & A. Kuzel (Eds.), *Nature of qualitative evidence* (pp.187-200). Thousand Oaks, CA: Sage.

Merleau-Ponty, M.(1956). What is phenomenology? *Cross Currents*, 6, 59-70.

Rubin, A., & Babbie, E.(1993). *Research methods for social work*(2nd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Streubert, H. J., & Carpenter, D. R.(1999). *Qualitative research in nursing: Advancing the humanistic imperative* (2nd ed.). New York: Lippincott.

Tsai, L. Y.(1992). Diagnostic issues in high functioning autism. In E. Schopler & G. B. Mesibovhigh. *Functioning individuals with autism*. New York: Plenum Press.

[부록1]

평가 및 훈련 활동 장면

■ 미네소타 손기민성 사전평가 장면

■ 현장훈련 활동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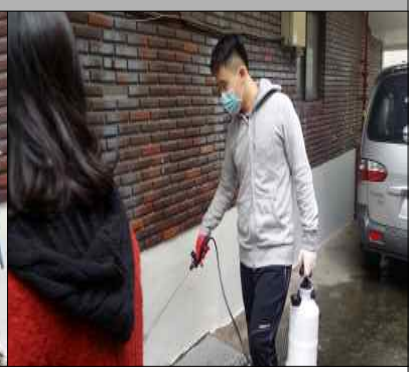
○ 1주차~6주차 활동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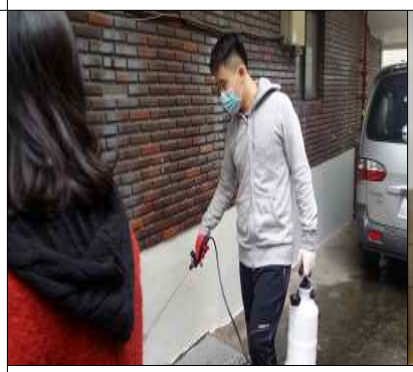
활동 내용	횟수	활동 사진
소독·방역 이론 교육	3회	 9월17일,24,10월1일 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주된 작업(소독·방역)에 대한 이론 교육 실시

소독·방역 작업 실습	19회	 소독 분무기 사용 방법 및 순서, 분사 방법에 대해 익히기
소독·방역 현장 실습	2회	 - 9월22일 현장실습 : 시설관리공단, 남포·광복동 지하상가 - 10월12일 현장실습 : 스포원 2층
임가공 작업	12회	 매직 및 여러 가지 색 색연필 등 포장작업
소독·방역 직무 평가	1회	 10월7일 소독·방역 직무평가를 통해 대상자들의 직무수행 과제 이해와 직무능력 파악

지역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 참여	2회	 - 9월25일 본 센터 지역사회적응훈련(영화관람 및 식당이용) 참여 - 10월21일 본 센터 지역사회적응훈련(연주회 관람) 참여
직업적응 훈련 프로그램 참여	2회	 - 10월1일~2일 본 센터 직업적응훈련 프로그램(색칠공부 및 금전관리훈련) 참여

○ 7주차~9주차 활동 장면

활동 내용	횟수	활동 사진
소독·방역 실습	14회	 소독 분무기 사용 방법 및 순서, 분사 방법에 대해 익히기

청소 작업 실습	8회	 청소업종에 필요한 장비 사용법 교육 및 실습
소독·방역 및 청소 현장 실습	3회	 - 10월26일 현장실습 : 사직역, 종합운동장역, 거제역 - 11월02일 현장실습 : 금련산 청소년 수련원 - 11월05일 현장실습 : 명지아파트 입주청소
소독·방역 및 청소 직무 평가	1회	 11월10일 소독·방역 및 청소 직무평가를 통해 대상자들의 직무수행 과제 이해와 직무능력 파악

미네소타 손기민성 평가 및 직업기능 스크리닝 검사	2회	 - 10월 16일 : 직업기능 스크리닝 검사 - 11월 13일 : 미네소타 손 기민성 평가/직업기능 스크리닝 검사
지역사회 적응훈련 프로그램 참여	1회	 - 11월12일 본 센터 지역사회적응훈련(지스타 관람 및 식당이용) 참여

[부록2]

자문회의 결과

1. 1차 자문회의 실시

○ 회의 개요

- 일 시: 2015. 9. 7(월), 13:00~17:00
- 장 소: 로뎀직업재활센터 2층 회의실
- 참석자: 총 8명

연구진

[연구책임자] 로뎀직업재활센터 원장	정신모
[공동연구원]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윤성호
[위촉연구원]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정상훈

자문위원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병현
대구사이버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이창희
부산기장군장애인부모회장	이진섭
부산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부회장	배재훈

참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	문용준

○ 자문 내용 요약

- 연구 참여 대상자에 대한 직무향상 평가는 '단일피험자 설계(single subject design)'보다는 프로그램 투입 사전·사후 평가가 가능한 실험통계 분석기법인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 적합할 것임
  - ➜ 직무향상 평가 방법은 연구지원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요청사항이므로, 재협의를 통해 최종 평가 방법을 선택하기로 함
- 발달장애인 대상 직무향상 평가를 위한 타당화된 측정도구가 많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데, 어떤 도구로 평가를 실시하려는 것인지 의문임

➜ 김동일 등(2013)이 개발한 직업기능스크리닝검사를 활용해 평가할 예정이고, 동 검사지의 구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함. 기타 의견 없었음

- 연구 참여 대상자 선정 시 경계선급이 아닌 최중증의 발달장애인을 선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에 획기적 계기를 마련하기를 희망함
  ➜ 특수학교, 특수학급, 지역사회 직업재활센터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본 프로그램에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함
- 연구 목적, 연구 진행 방향 등을 검토해 볼 때 발달장애인의 성공적 직업재활을 위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판단됨. 오늘 제시한 연구 절차에 따라 신중히 추진되길 희망함
-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해 그간 부모 역할의 중요성이 간과된 부분이 많았음. 발달장애인의 어머니를 작업지도원으로 활용하려는 연구 의도가 참신하게 여겨짐. 연구에 참여하는 어머니가 작업지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 또는 전문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중증장애인을 위한 취업 전 프로그램의 직무지도원 교육을 실시한 경험이 풍부한 위촉연구원이 본 연구의 어머니 작업지도원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적용시킬 예정임

○ **회의 장면**

2. 2차 자문회의 실시

○ **회의 개요**

- 일 시: 2015. 11. 12(목), 15:00~18:00

- 장 소: 로뎀직업재활센터 2층 회의실
- 참석자: 총 6명

연구진

[연구책임자] 로뎀직업재활센터 원장	정신모
[위촉연구원]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정상훈

자문위원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병현
대구사이버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이창희
부산기장군장애인부모회장	이진섭
부산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부회장	배재훈

○ **자문 내용 요약**

- '단일피험자 설계(single subject design)'에 따라 분석한 양적 성과 결과와 함께 질적 성과 결과를 제시하는 혼합적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현장수요연구가 탐구하고자 한 주제를 보다 선명히 드러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양적 성과 결과를 제시하고, 작업지도원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관찰 및 면접조사 결과를 토대로 질적 성과 결과를 제시하기로 함
- 양적 성과 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선이 1회 조사에 의해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으로 객관적인 기초선을 구축하였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보다 객관적인 기초선 구축을 위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연구 대상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장훈련을 시작일이 예상보다 많이 늦어져 객관적인 기초선을 구축하기에 시간상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보고함. 발달장애인의 직업 특성을 고려할 때 2개월간의 현장훈련기간 중 많은 시간을 기초선 구축을 위해 소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음을 설명함
- 현장훈련의 종료로 이 연구가 탐구하고자 한 주제를 쉽게 파악하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됨. 향후 연구 대상자를 다른 근로환경에 적응시키고, 이를 추적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 연구대상자 중 2개조는 작업지도원인 어머니 또한 취업을 강력히 희

망하나, 나머지 2개조의 어머니는 취업을 지속하는 것에 대해 고민 중에 있는 상황임. 일단 취업을 강력히 희망하는 2개조는 취업처를 개발해 취업알선 후 추적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임